

여론조사꽃

제15차

정례여론조사 ARS+WEB

보고서

www.flowerresearch.com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여론조사 

여론조사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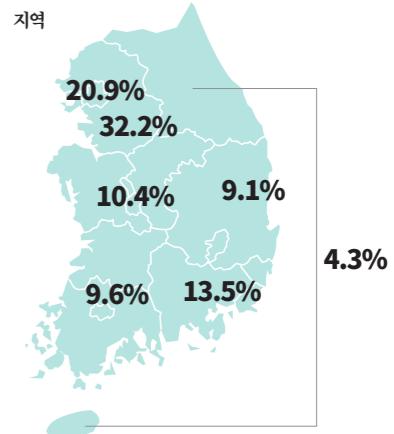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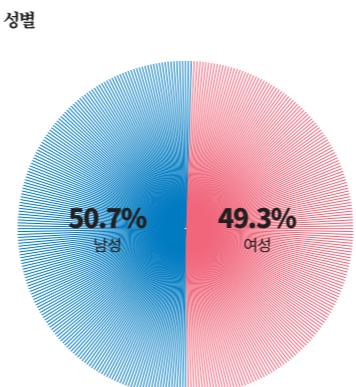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ARS +WEB

보고서

ARS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2022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6.2% [총 통화시도 16,336명]
조사기간	2022년 11월 13일 ~ 11월 14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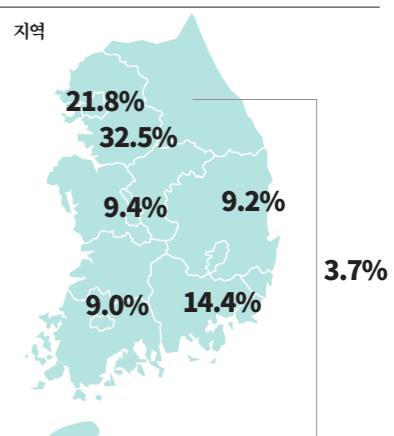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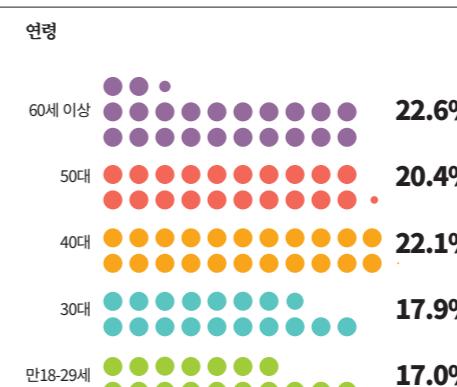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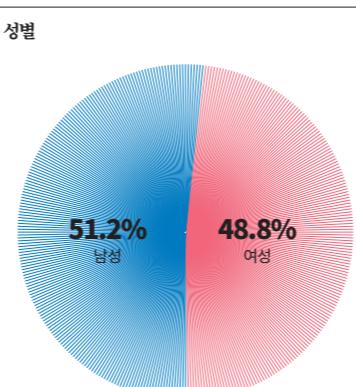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비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4	100.0%	1,014	100.0%	1.00
성별					
남성	514	50.7	503	49.6	0.98
여성	500	49.3	511	50.4	1.02
연령					
만18-29세	141	13.9	172	17.0	1.22
30대	159	15.7	151	14.9	0.95
40대	199	19.6	186	18.3	0.93
50대	208	20.5	197	19.4	0.95
60대	187	18.4	169	16.7	0.90
70세 이상	120	11.8	139	13.7	1.16
지역					
서울	212	20.9	191	18.8	0.90
인천·경기	327	32.2	322	31.8	0.98
대전·세종·충청	105	10.4	107	10.6	1.02
광주·전라	97	9.6	98	9.7	1.01
대구·경북	92	9.1	99	9.8	1.08
부산·울산·경남	137	13.5	152	15.0	1.11
강원·제주	44	4.3	45	4.4	1.02



WEB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67명
표본오차	±3.0%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2022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넷포인트 온라인 회원가입 등으로 구축된 온라인 패널 중 성·연령대·지역별 무작위 추출 실시한 인터넷 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86.4% [총 연결지도 1,235명]
조사기간	2022년 11월 10일 ~ 11월 1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비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67	100.0%	1,067	100.0%	1.00
성별					
남성	546	51.2	529	49.6	0.97
여성	521	48.8	538	50.4	1.03
연령					
만18-29세	181	17.0	180	16.9	0.99
30대	191	17.9	160	15.0	0.84
40대	236	22.1	196	18.4	0.83
50대	218	20.4	208	19.5	0.95
60세 이상	241	22.6	323	30.3	1.34
지역					
서울	233	21.8	200	18.7	0.86
인천·경기	347	32.5	340	31.9	0.98
대전·세종·충청	100	9.4	113	10.6	1.13
광주·전라	96	9.0	105	9.8	1.09
대구·경북	98	9.2	104	9.7	1.06
부산·울산·경남	154	14.4	159	14.9	1.03
강원·제주	39	3.7	46	4.3	1.18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값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값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ARS +WEB

보고서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국정지표, 국정현안, 체감지표

ARS+WEB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국정 운영 평가

국정현안 차기 총선 예상

ARS 국정현안 대통령의 이미지

현정부 운영 비교 평가 1

현정부 운영 비교 평가 2

대통령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

여당과 야당의 역할

WEB 체감지표 대통령호감도

10.29참사 원인: 주최자 없는 행사

대응: 정부의 대처

원인: 안전대책

대응: 대통령 담화 형식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

원인: 경찰 인력이 집중된 곳

대응: 추모 열기의 의도적 축소 의혹

원인: 마약 단속에 집중된 경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의 참사 대응

원인: 촛불집회

대응: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

대응: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조치

대응: 희생자 명단 공개

대응: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여론조사 꽃은 '이태원 참사'를 지명이 들어가지 않는 '10.29 참사'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꽃, 11월의 세 번째 리포트는
정당지지도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한
ARS와 WEB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 운영 평가, 대통령의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10.29참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질문하고
그 응답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ARS +WEB

보고서

ARS+WEB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국정현안 차기 총선 예상

ARS 국정현안 대통령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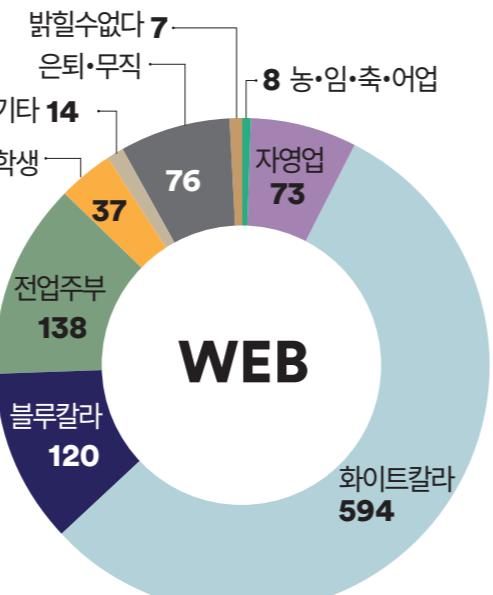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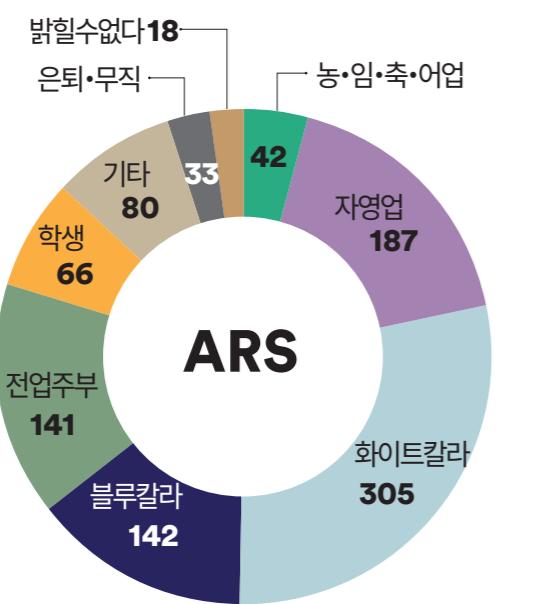
현정부 운영 비교 평가 1

현정부 운영 비교 평가 2

대통령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

여당과 야당의 역할

응답자 직업 분포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평가, 2024년 실시될 총선에 대한 질문을 ARS와 WEB 조사로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조사 방식과 응답자 특성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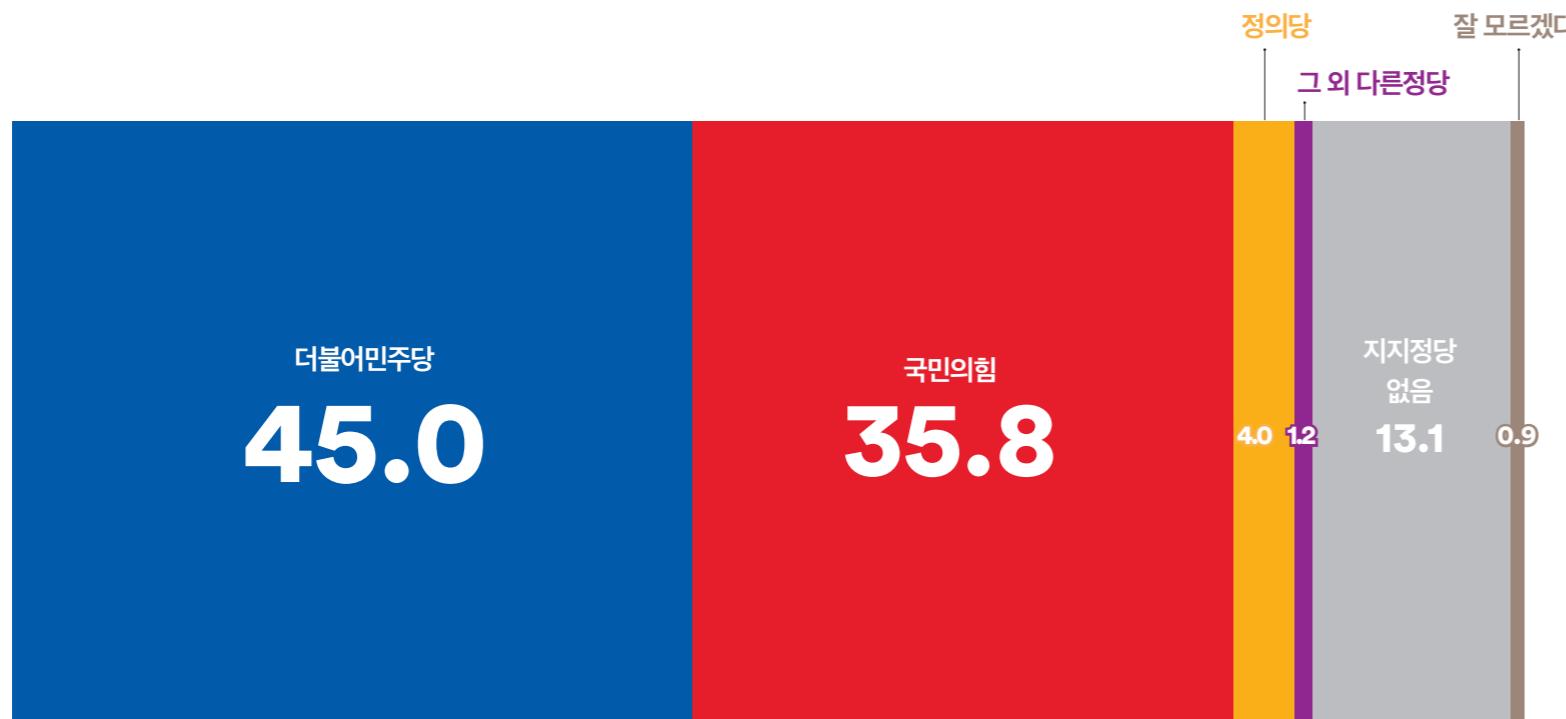
ARS 조사에서는 취임 6개월에 접어든 대통령의 이미지를 묻고, 윤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난 정부들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가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과 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묻고 응답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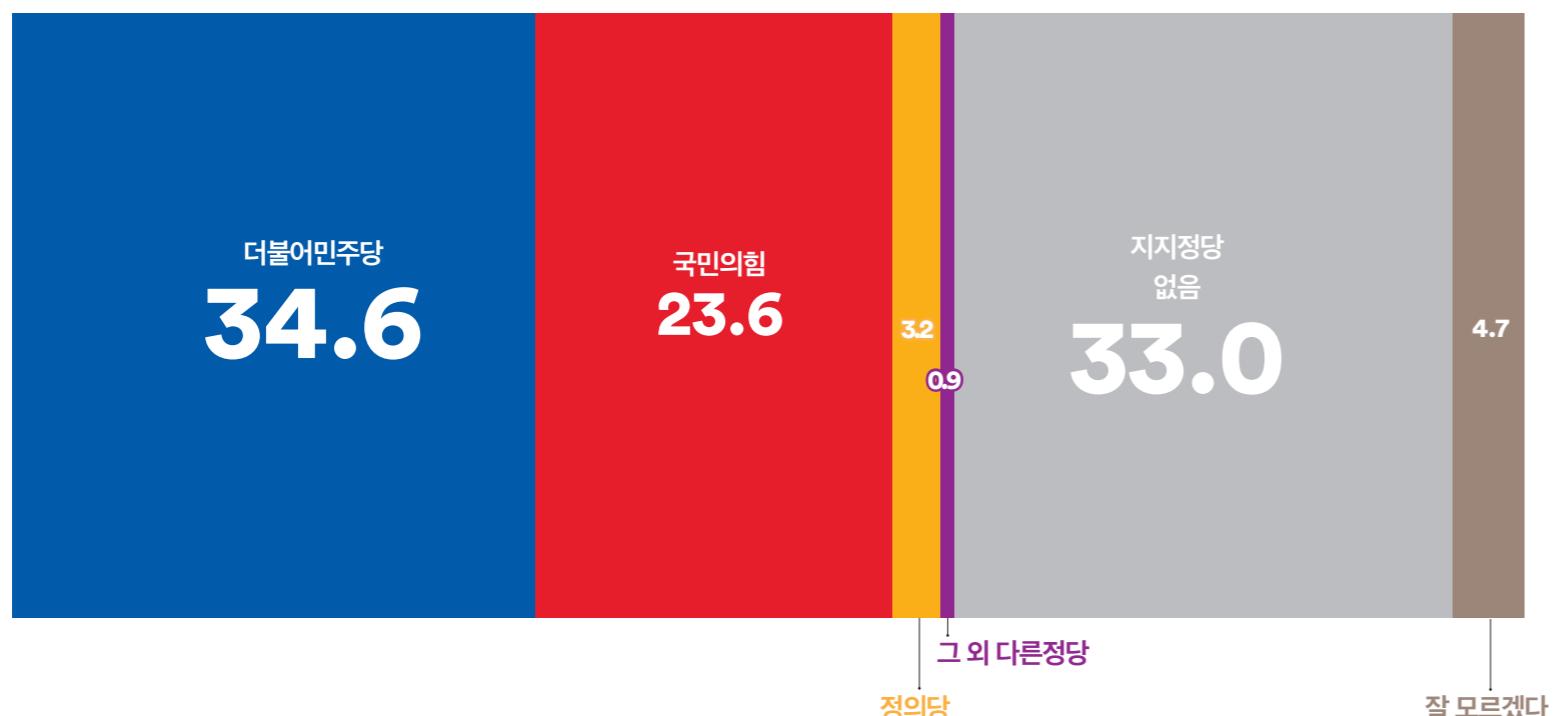
ARS



연령	18-29세	27.2	6.7	21.6
30대	55.8	26.0	16.5	
40대	60.7	21.8	12.0	
50대	45.0	37.9	8.3	8.2
60대	37.2	46.9	10.9	
70세이상	28.1	59.2	10.1	

이념성향	진보	8.2	7.4
중도	45.0	31.9	5.9
보수	16.9	72.8	6.5
잘모름	34.5	32.5	28.2

WEB



연령	18-29세	22.1	5.1	34.1	5.3
30대	28.7	26.0	34.8		7.3
40대	39.5	17.0	31.0		7.2
50대	44.4	17.1	34.7		
60세이상	29.1	31.5	31.5		

이념성향	진보	5.6	14.2
중도	31.9	19.8	40.6
보수	13.1	63.6	17.7
잘모름	8.3	54.9	26.0

ARS와 WEB 조사 결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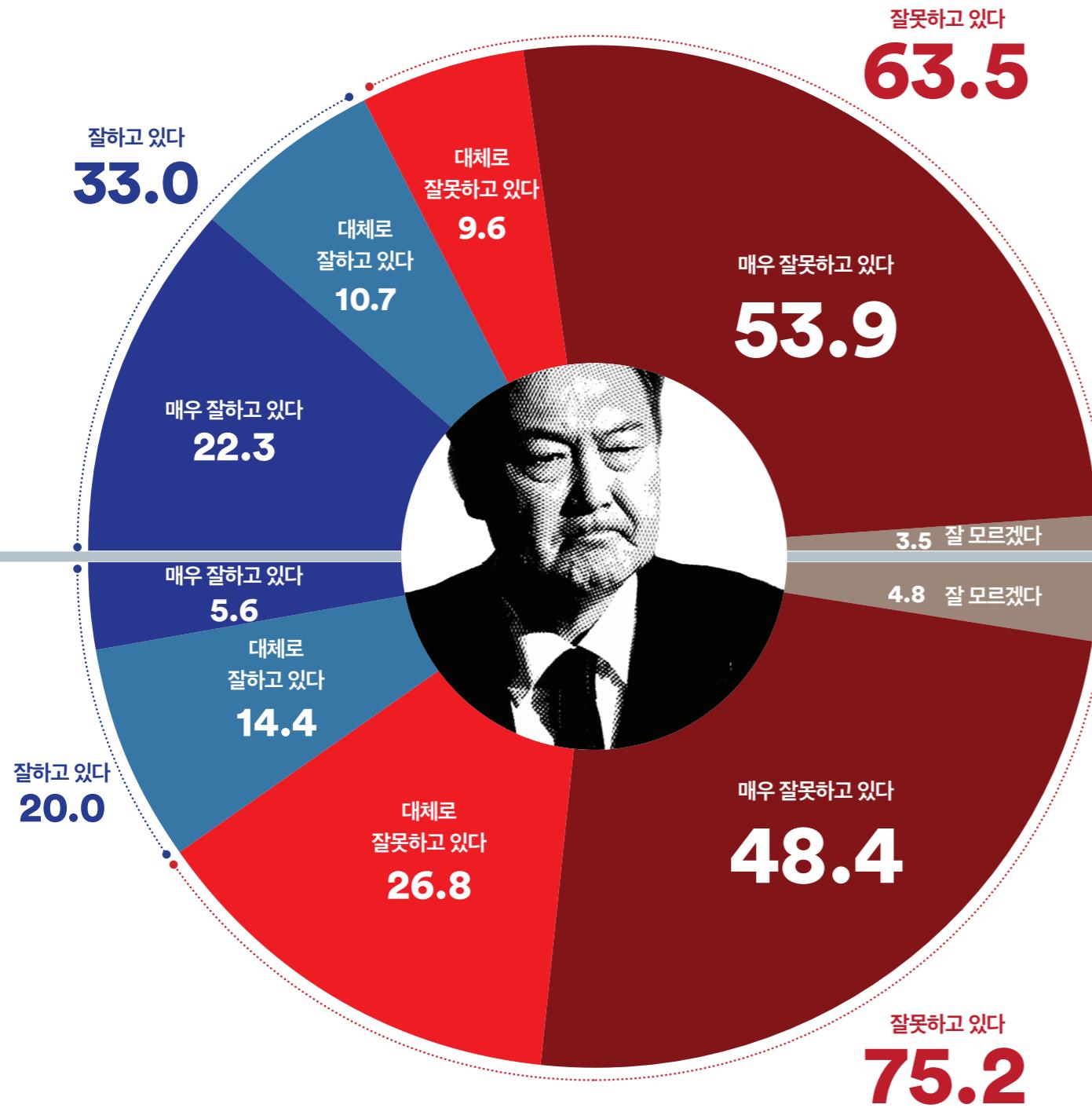
지난 ARS 조사(11월 6~7일) 대비 더불어민주당 3.0%p 감소, 국민의힘 3.6%p 증가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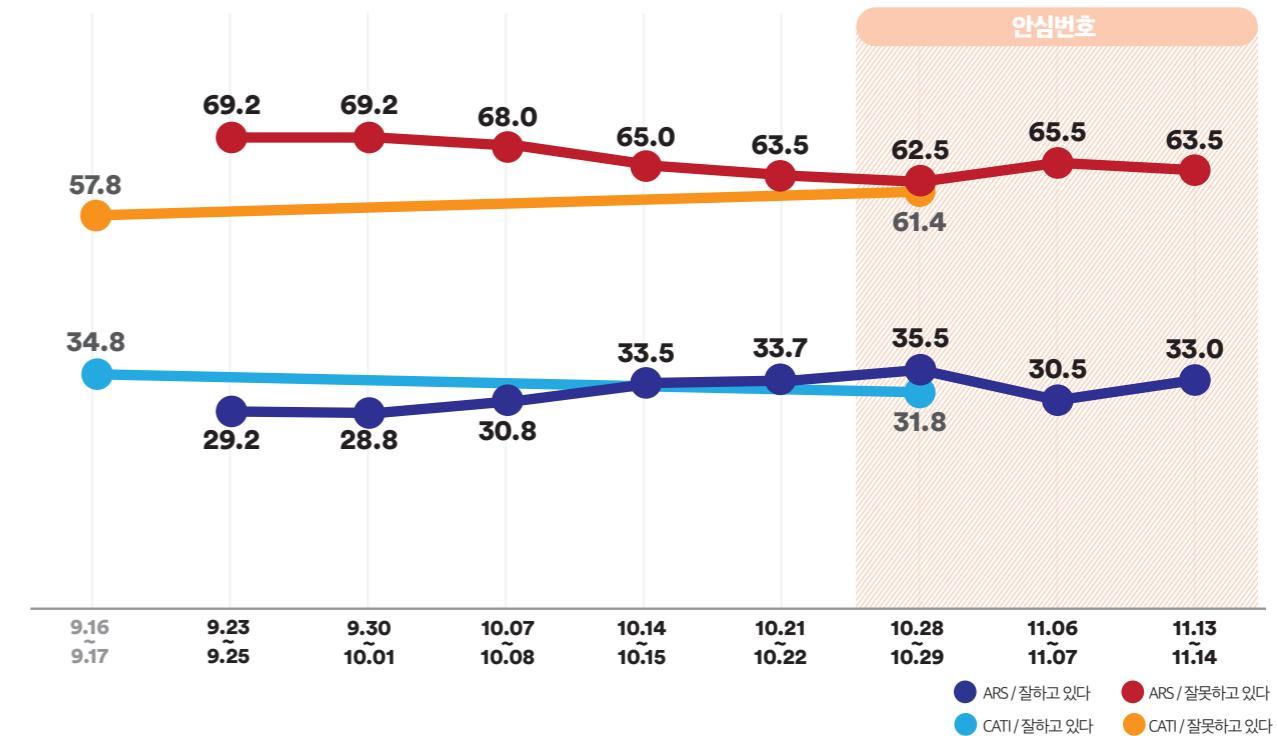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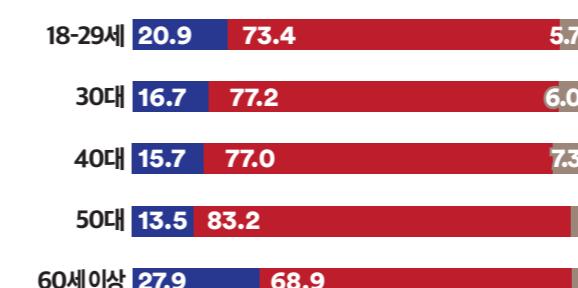
ARS와 WEB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우세

지난 ARS 조사(11월 6~7일) 대비 긍정 2.5%p 증가, 부정 2.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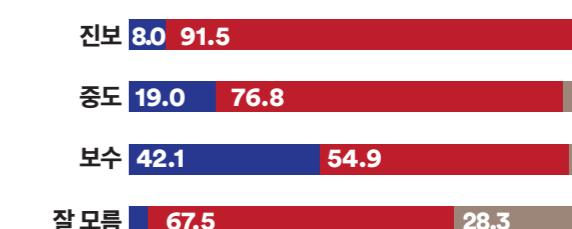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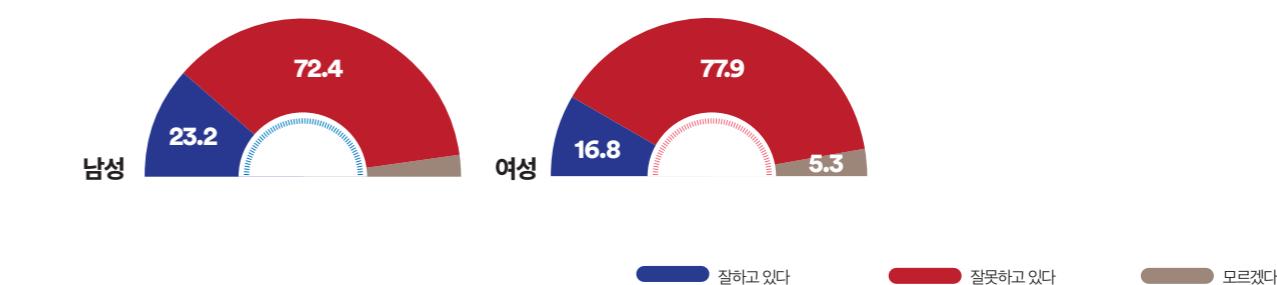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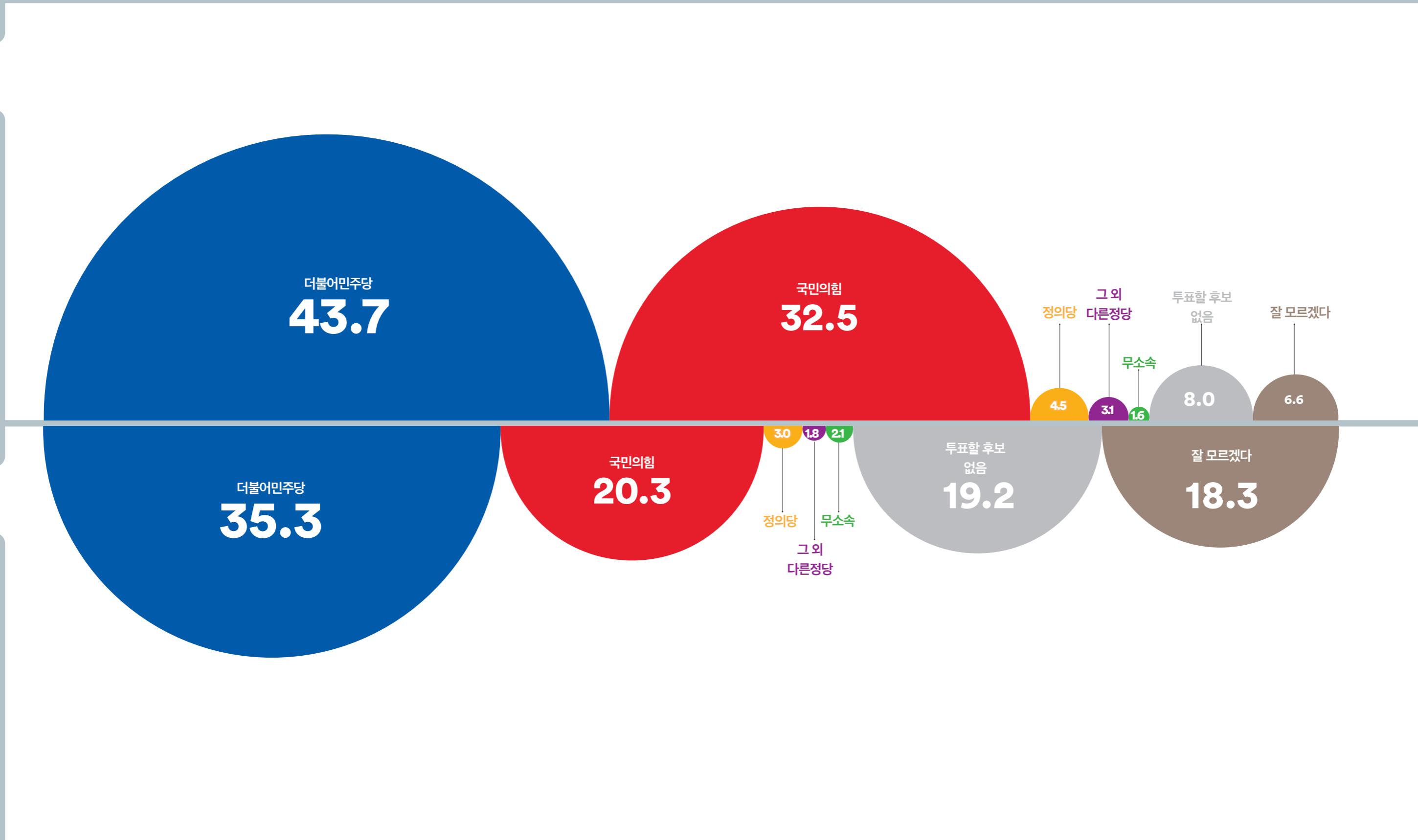
체감지표

차기 총선 예상

Q. 차기 총선이 2024년 4월에 실시됩니다. 다음 중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으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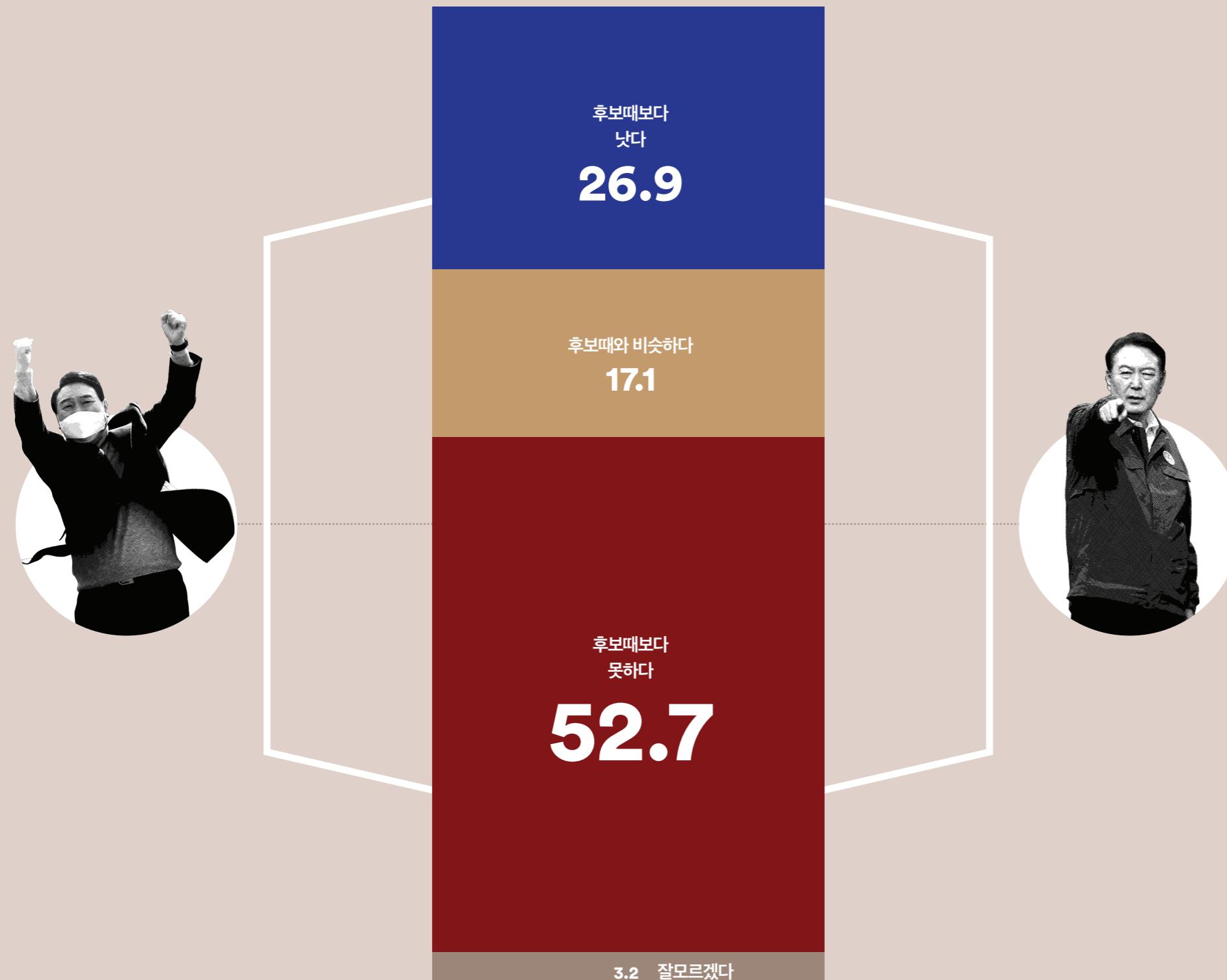
WEB



국정 현안

대통령의 이미지

Q.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전 대선 후보시절과 지금의 윤대통령을 비교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TK, PK, 6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는 '후보 때보다 못하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후보 때보다 낫다'는 응답은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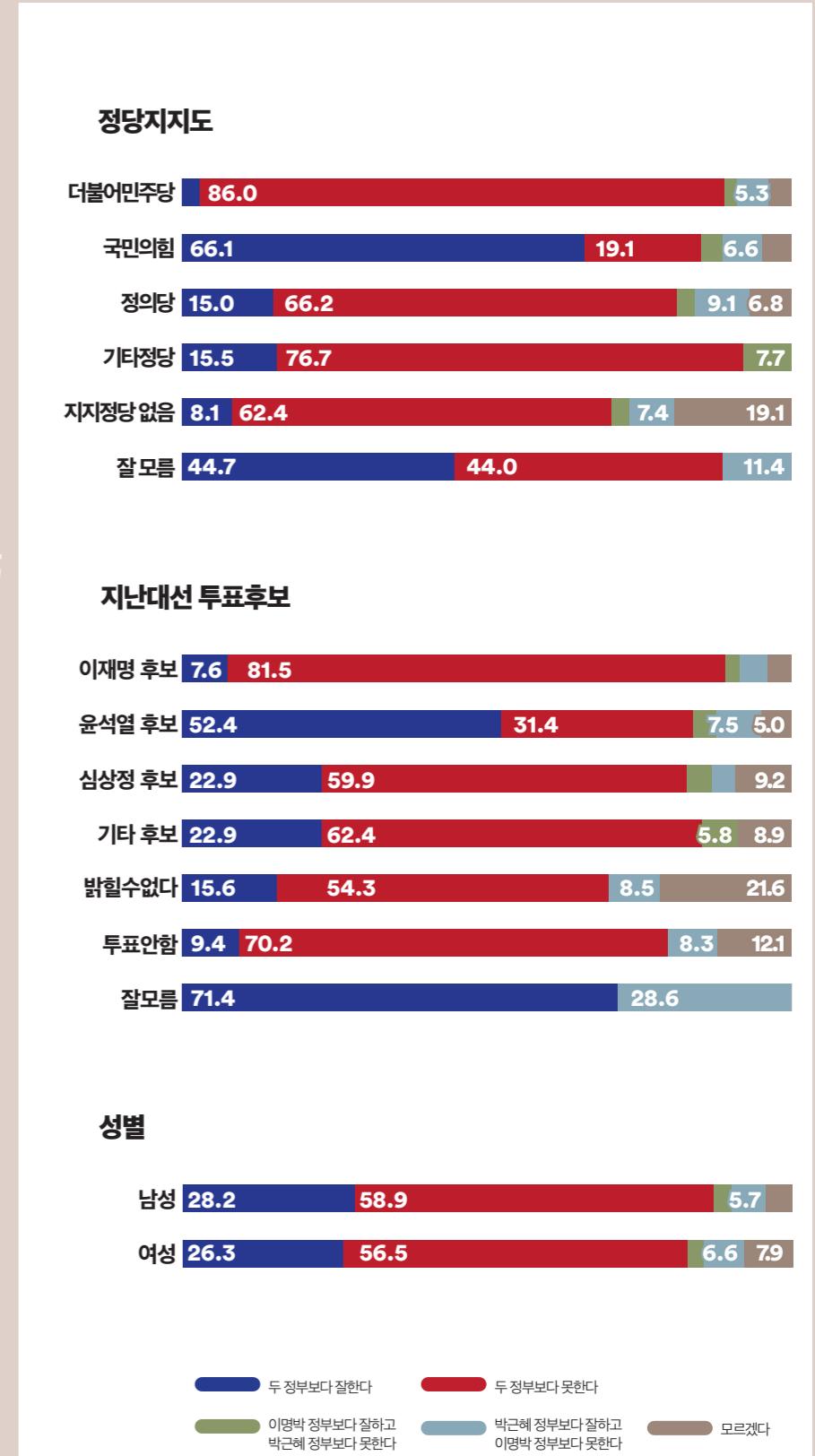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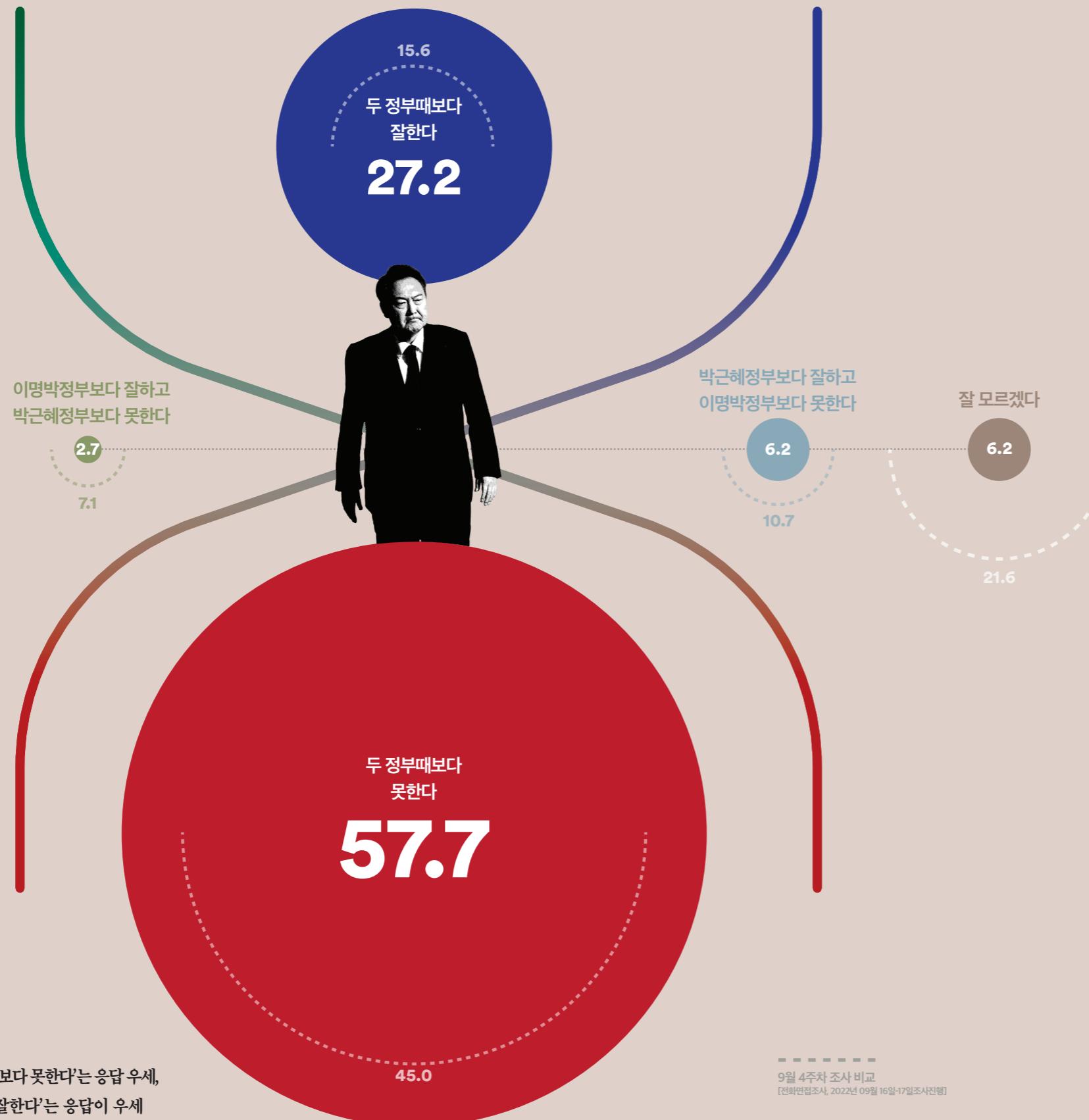
지난 대선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33.4%가 '후보 때보다 못하다'라 응답

후보때보다 낫다
비슷하다
후보때보다 못하다
모르겠다

국정현안

현 정부 운영 비교 평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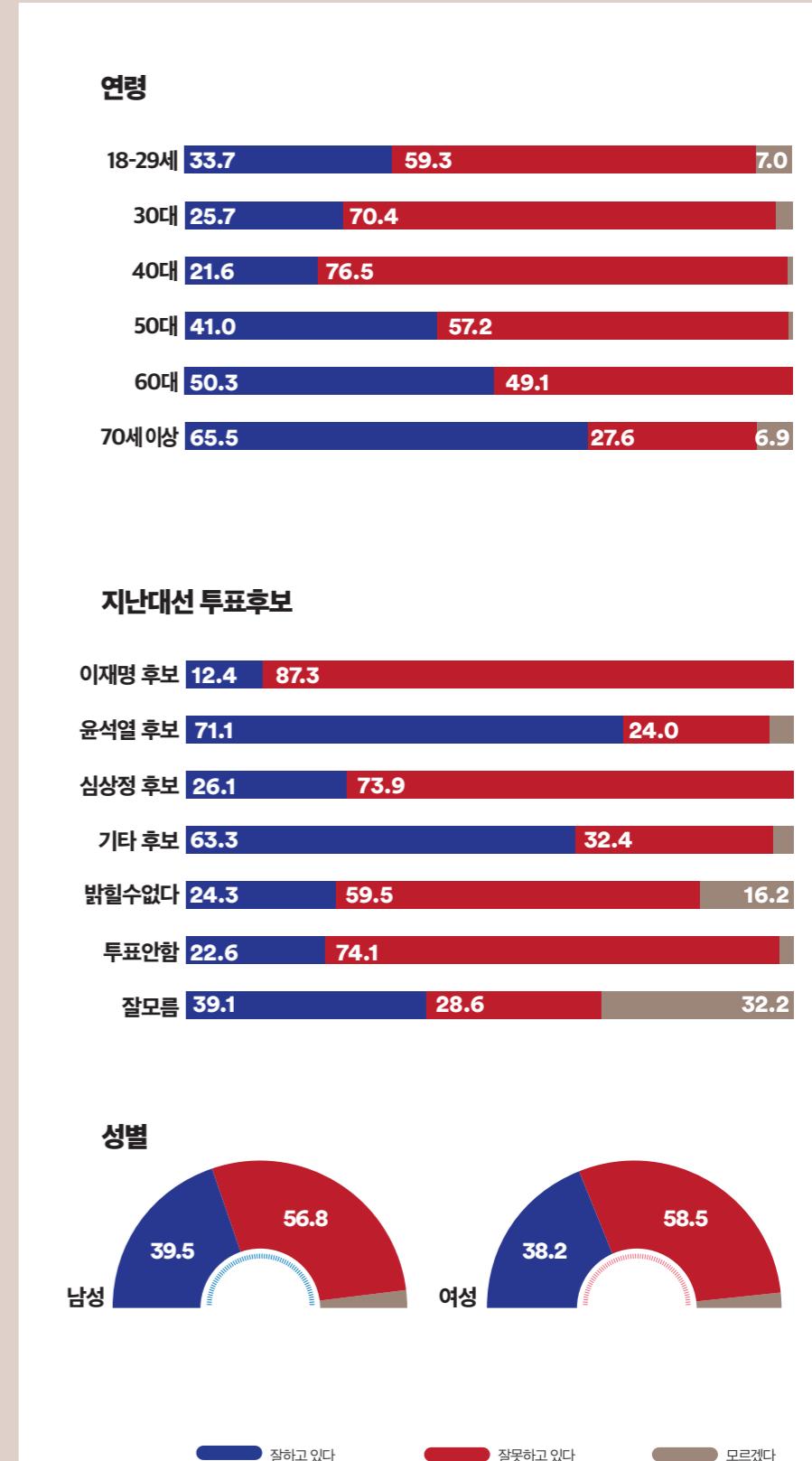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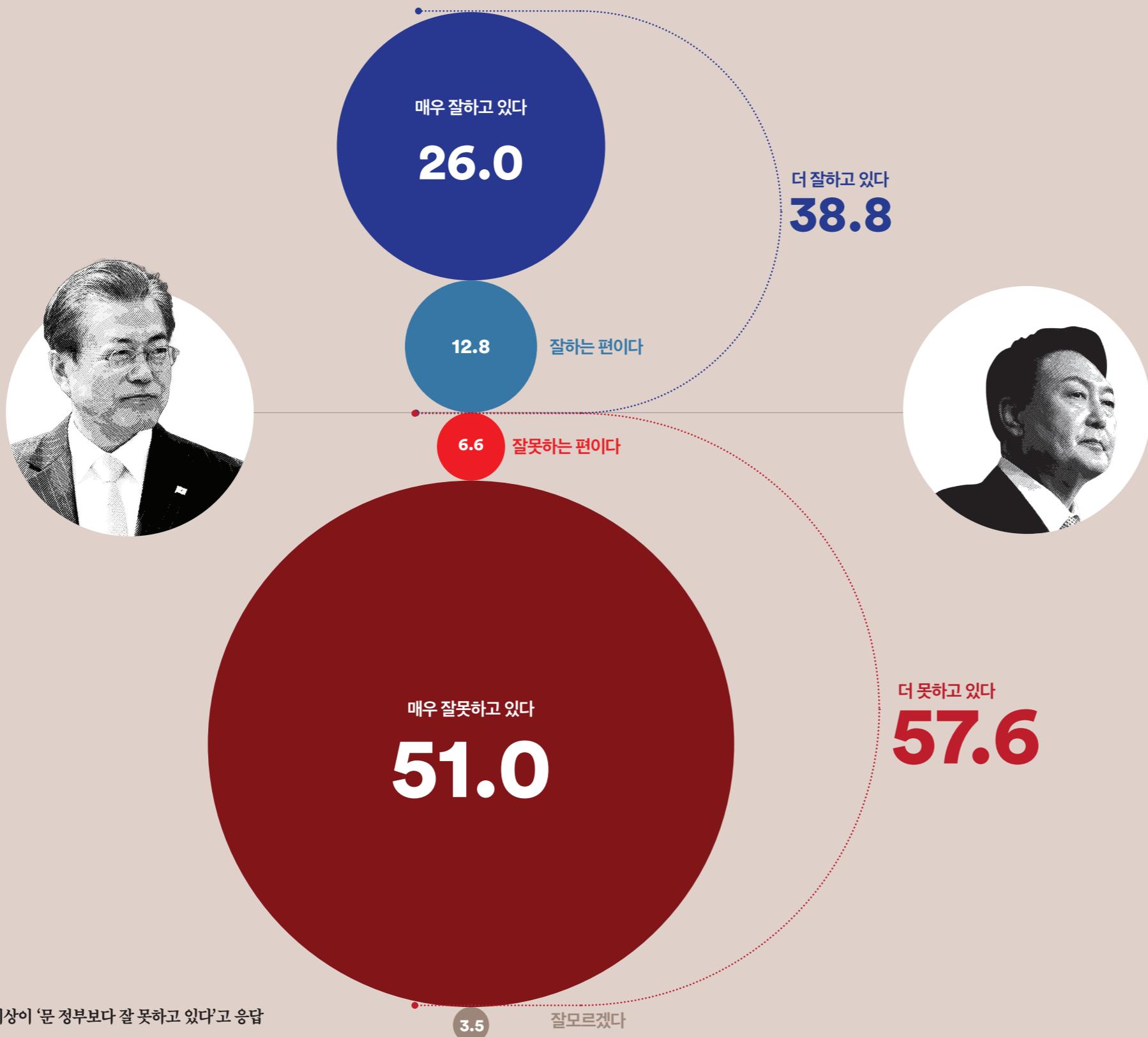
Q. 보수정부라 일컬어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자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전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현안

현 정부 운영 비교 평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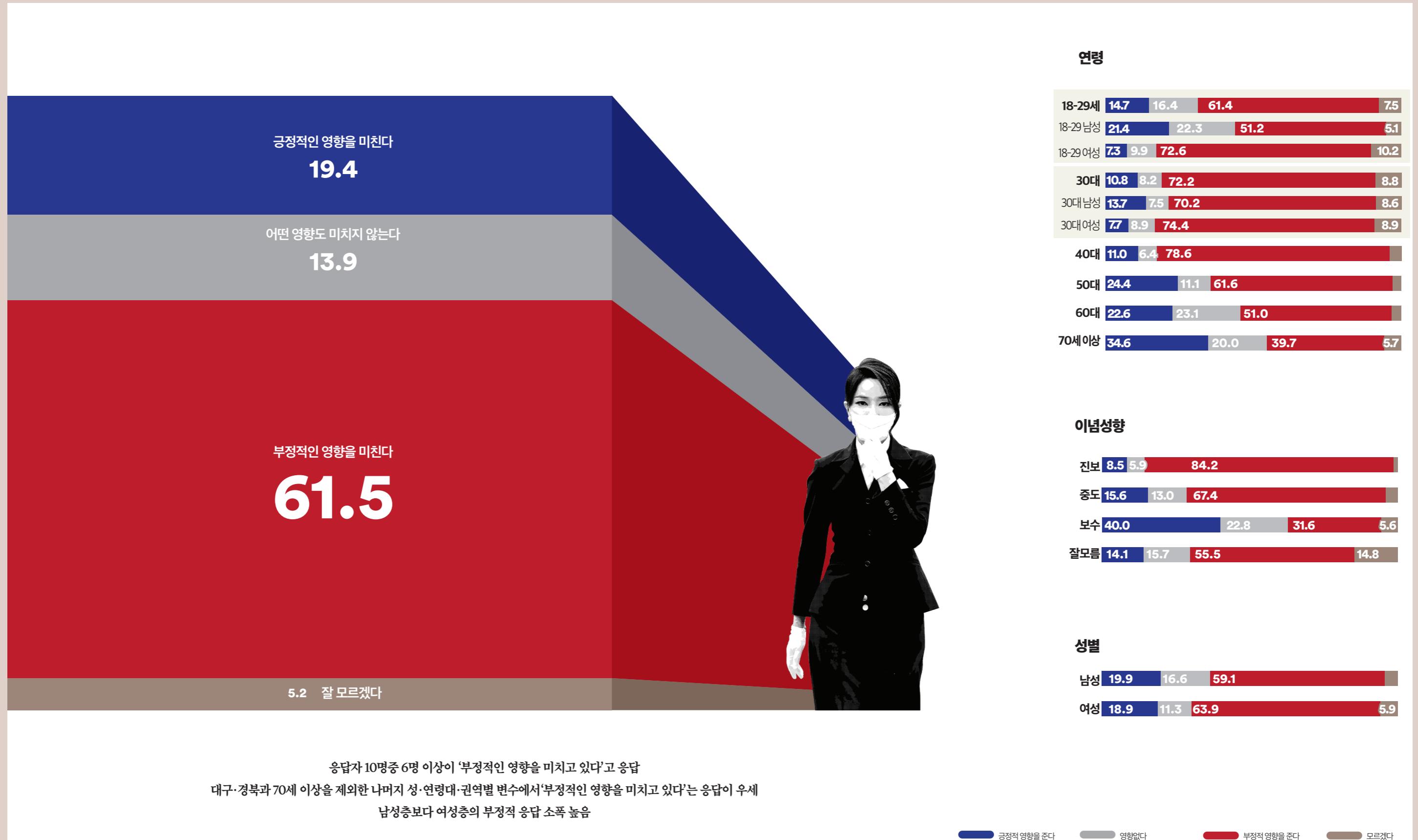
Q. 지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보자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전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현안

대통령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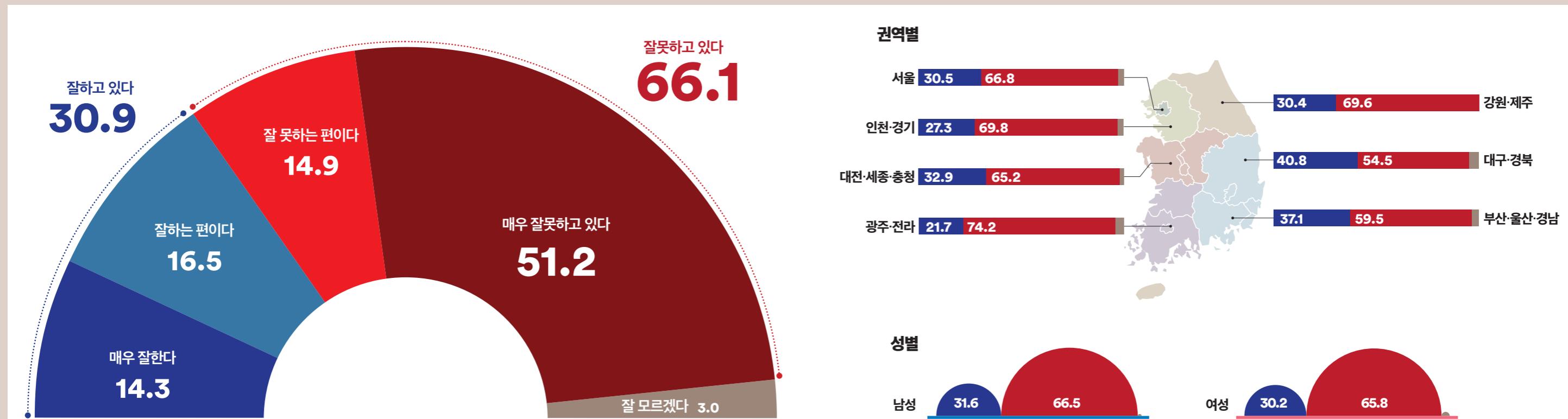
Q.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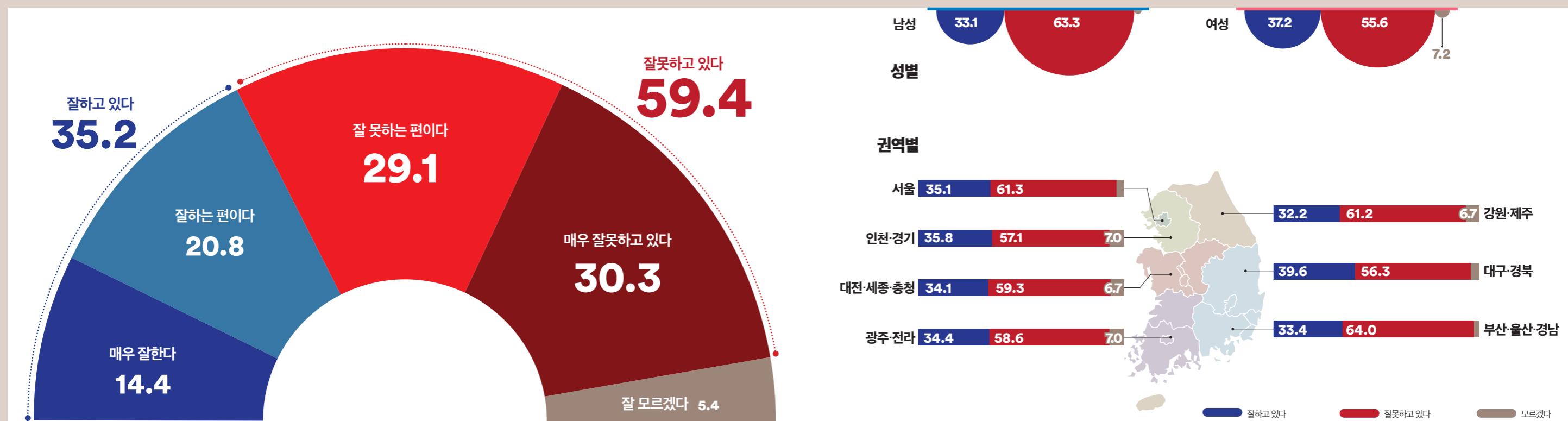
국정현안

여당과 야당의 역할

Q.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WEB

보고서

체감지표 대통령호감도

10.29참사 원인: 주최자 없는 행사

원인: 안전대책

원인: 경찰 인력이 집중된 곳

원인: 마약 단속에 집중된 경력

원인: 촛불집회

대응: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조치

대응: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대응: 정부의 대처

대응: 대통령 담화 형식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

대응: 추모 열기의 의도적 축소 의혹

대응: 더불어민주당의 참사 대응

대응: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

대응: 희생자 명단 공개

10.29참사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을 WEB조사로 물었습니다.

10.29참사의 원인이라고 이야기 되는 여러 문제들과 정부가 참사에 대해 체계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 묻고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이태원 참사'를 지명이 들어가지 않는 '10.29 참사'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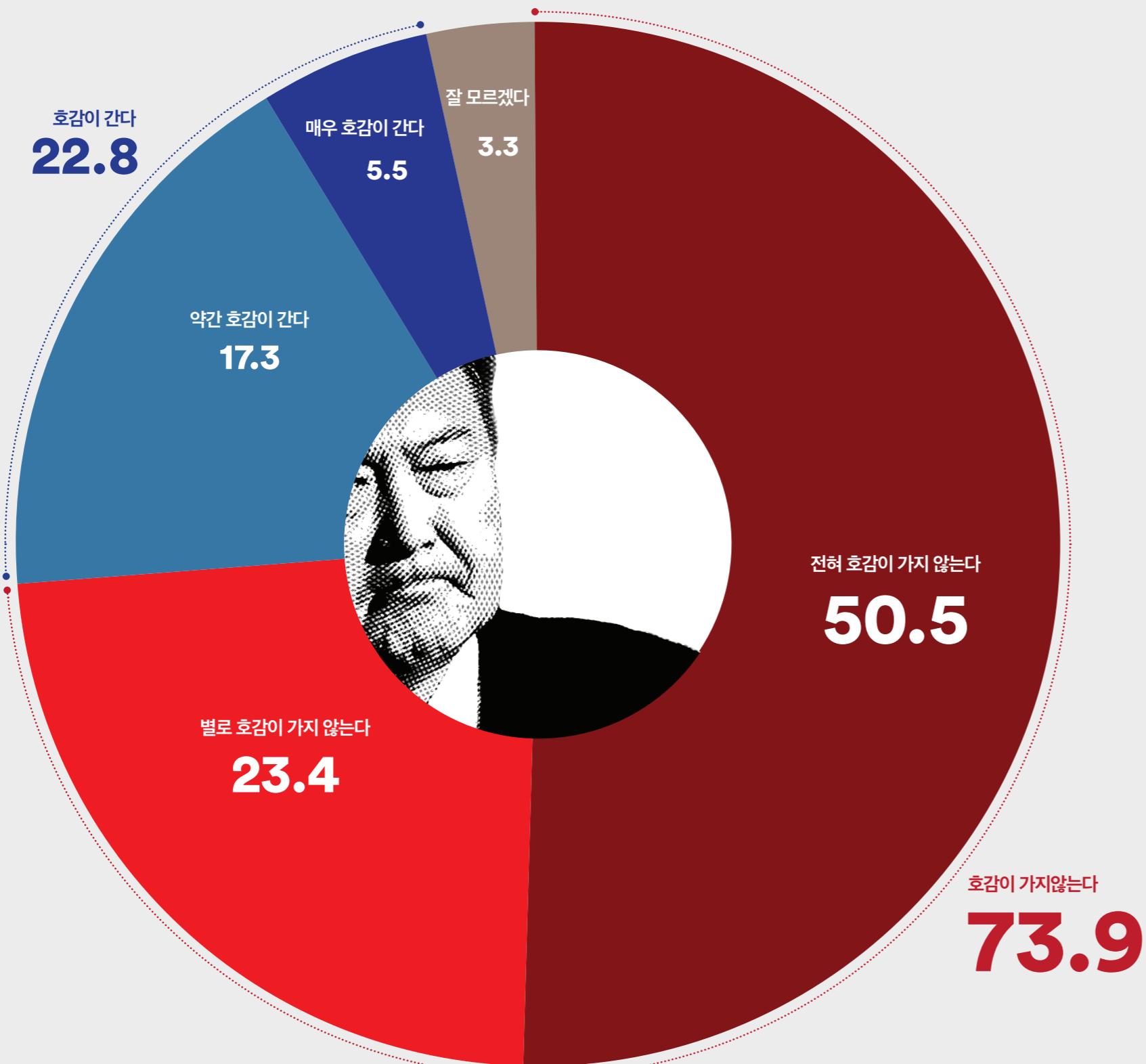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체감 지표

대통령 호감도

Q. 윤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연령

18-29세	19.2	76.3
30대	20.8	74.2
40대	15.2	82.3
50대	20.6	78.0
60세이상	31.7	64.6

이념성향

진보	7.9	91.6
중도	20.1	77.4
보수	55.1	43.5
잘 모름	71.7	25.0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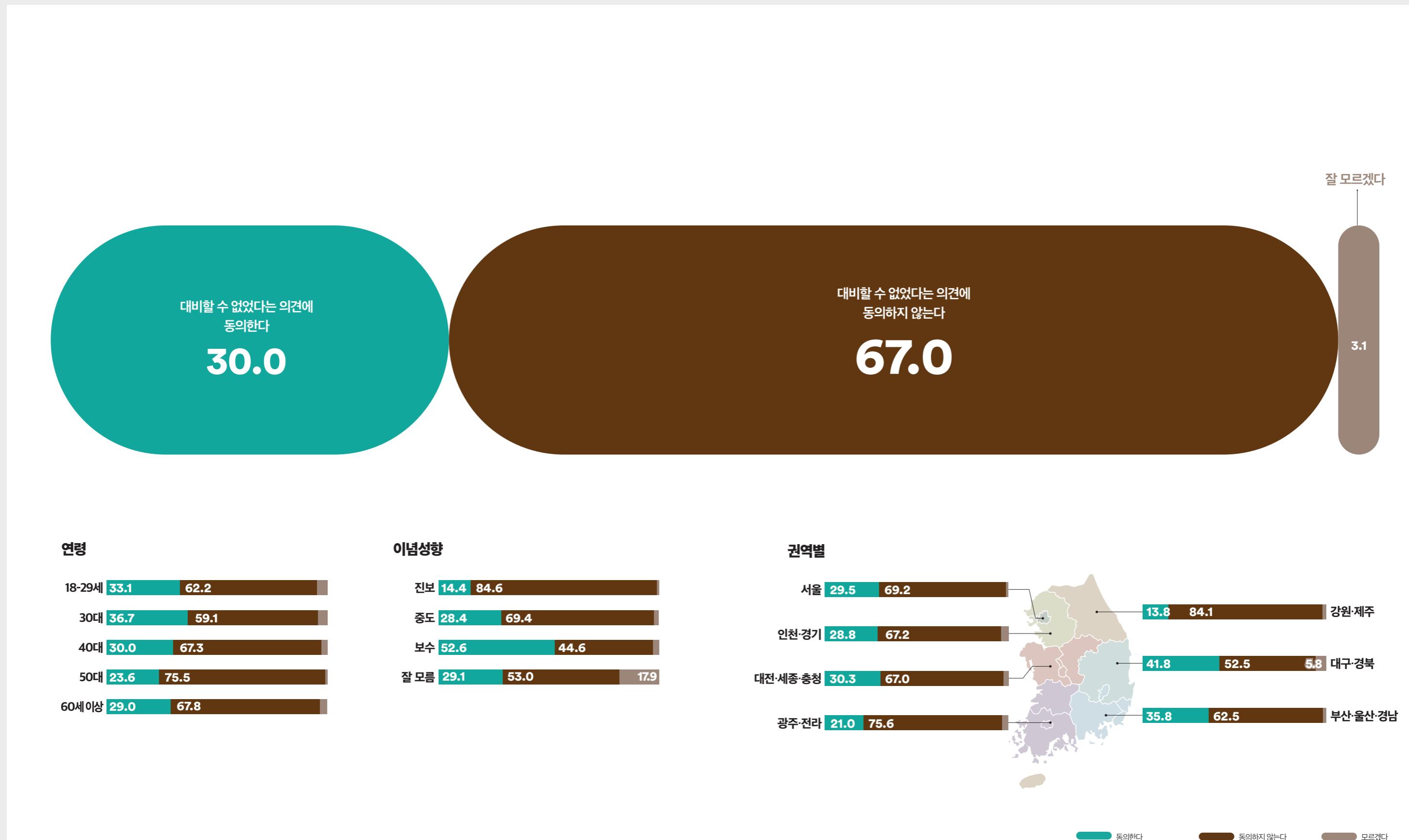


■ 호감이 간다 ■ 호감이 가지 않는다 ■ 모르겠다

10.29 참사

원인: 주최자 없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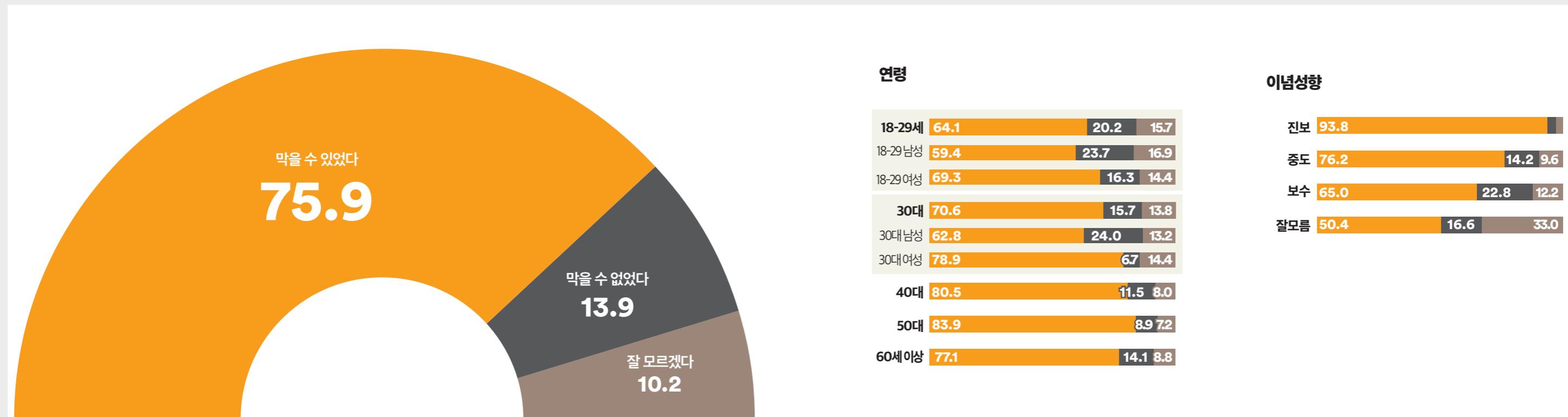
Q. 할로윈에는 주최자가 없기때문에 10.29 참사를 미리 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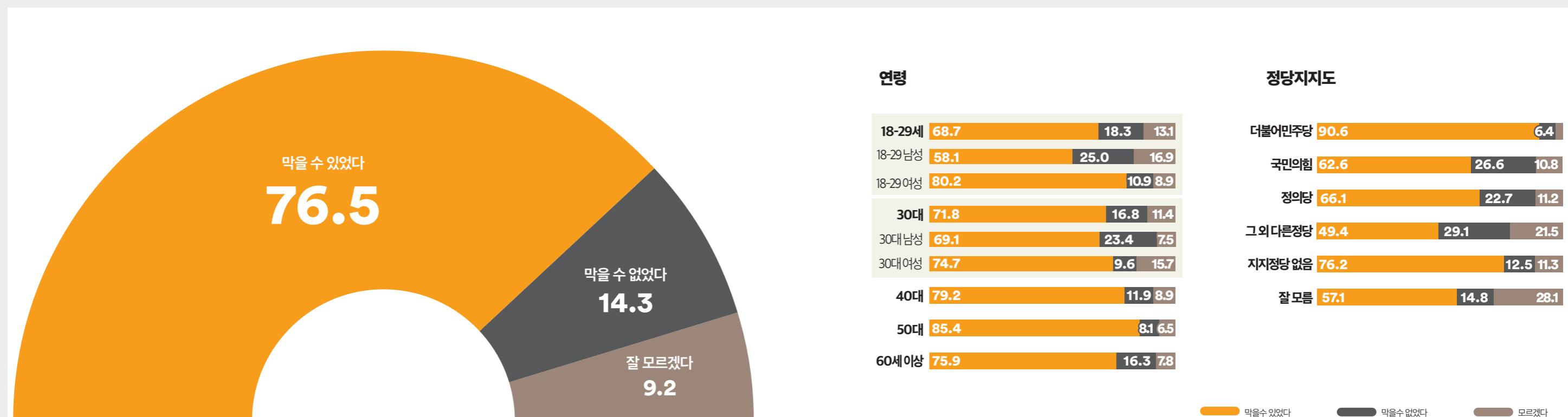
10.29 참사

원인: 안전 대책

Q. 지자체와 경찰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했다면 10.29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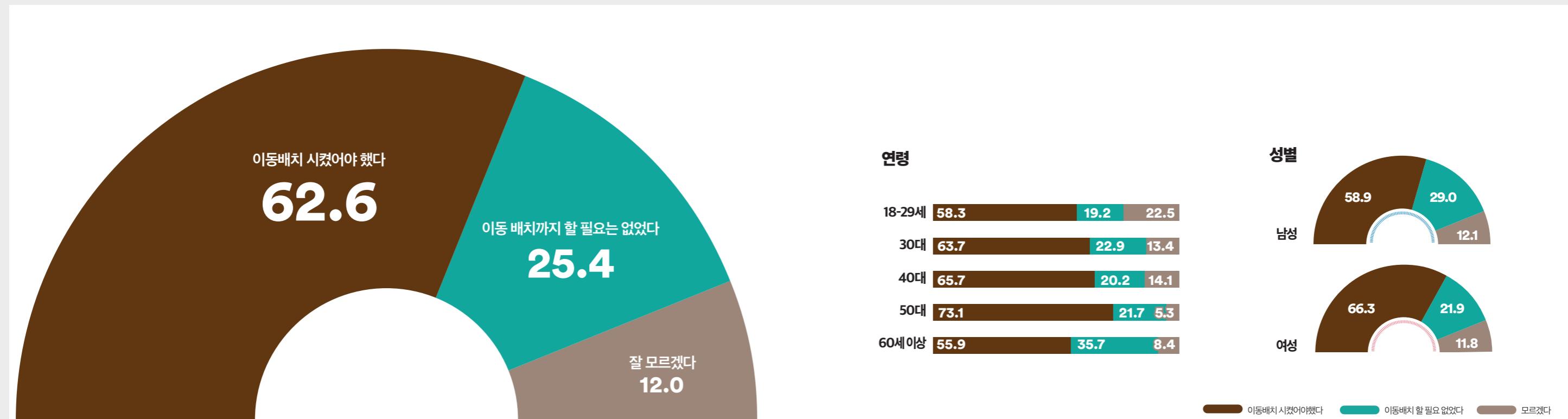
Q. 10.29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112 신고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경찰 기동대 투입 등 신속히 대처 했다면 10.29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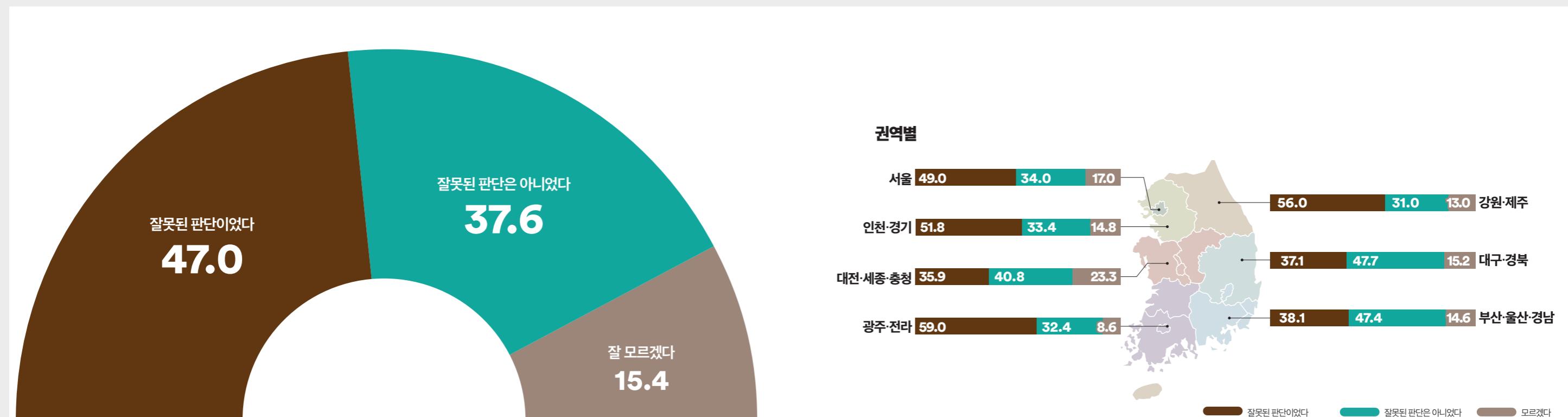
10.29 참사

원인: 경찰 인력이 집중된 곳

Q. 10.29 참사 당일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나 용산 대통령실에 배치되었던 경찰 기동대를 참사 현장으로 이동 배치 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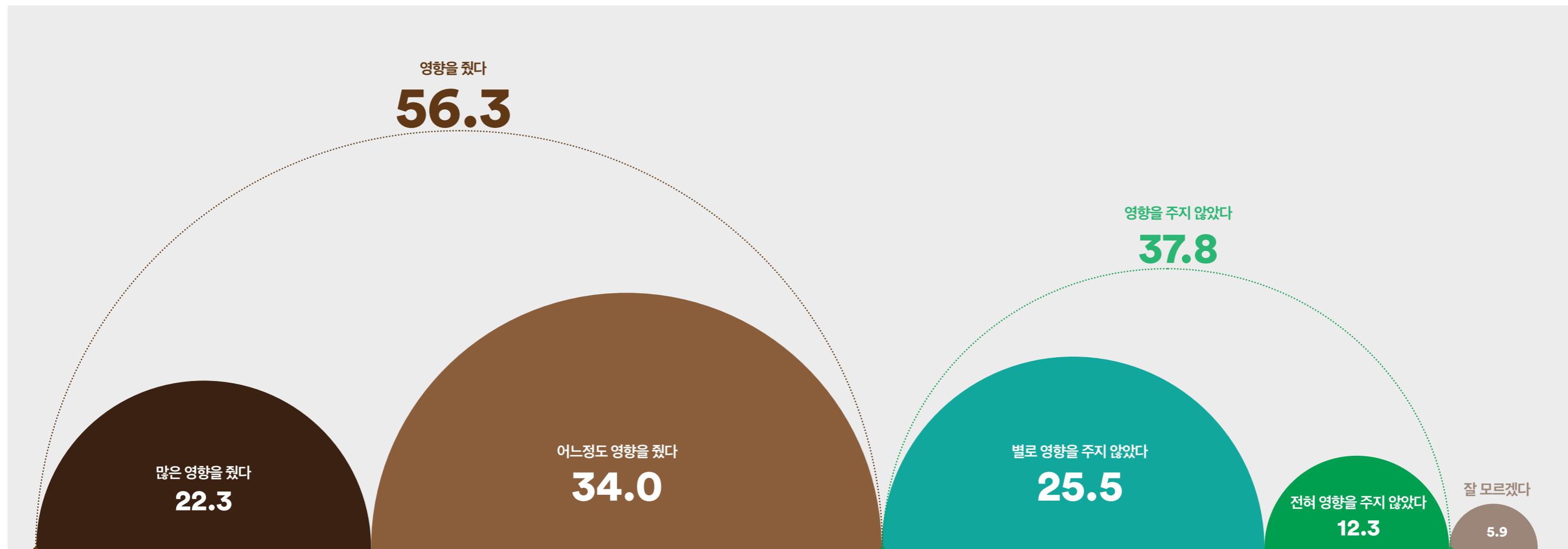
Q. 경찰 지휘부는 이태원에서 마야 단속에 치중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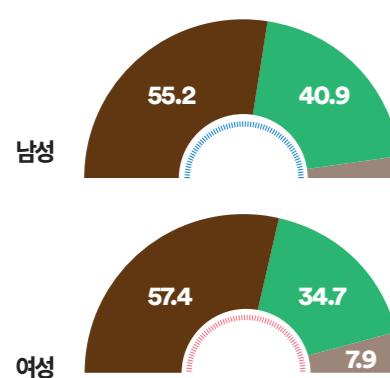
10.29 참사

원인: 마약 단속에 집중된 경찰

Q. 경찰의 마약 단속 치중이 10.29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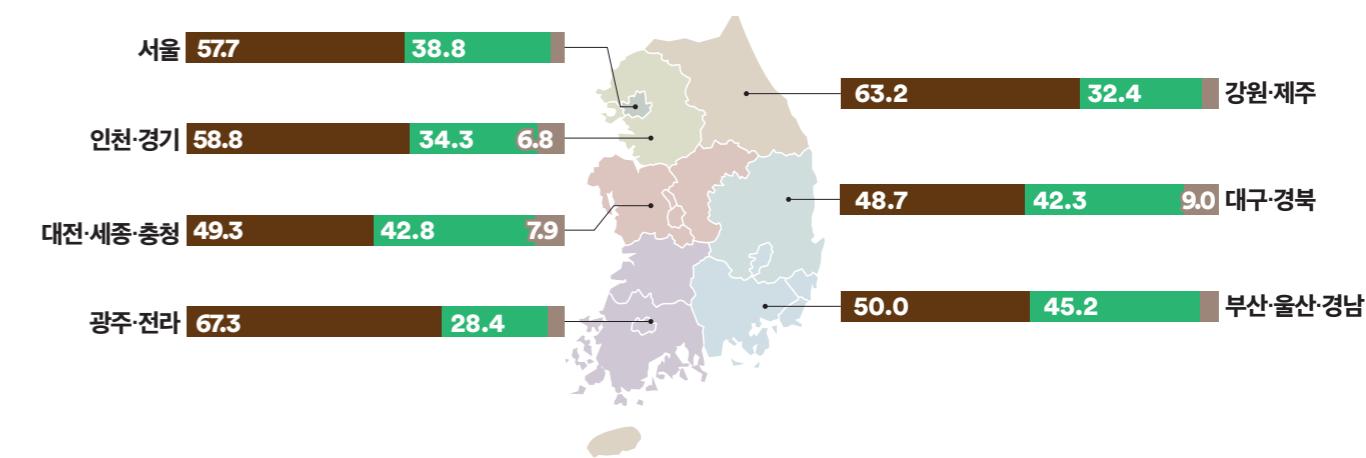
성별



연령

18-29세	52.0	35.6	12.4
30대	52.9	41.5	5.7
40대	61.0	33.7	5.3
50대	66.6	32.4	
60세이상	51.0	43.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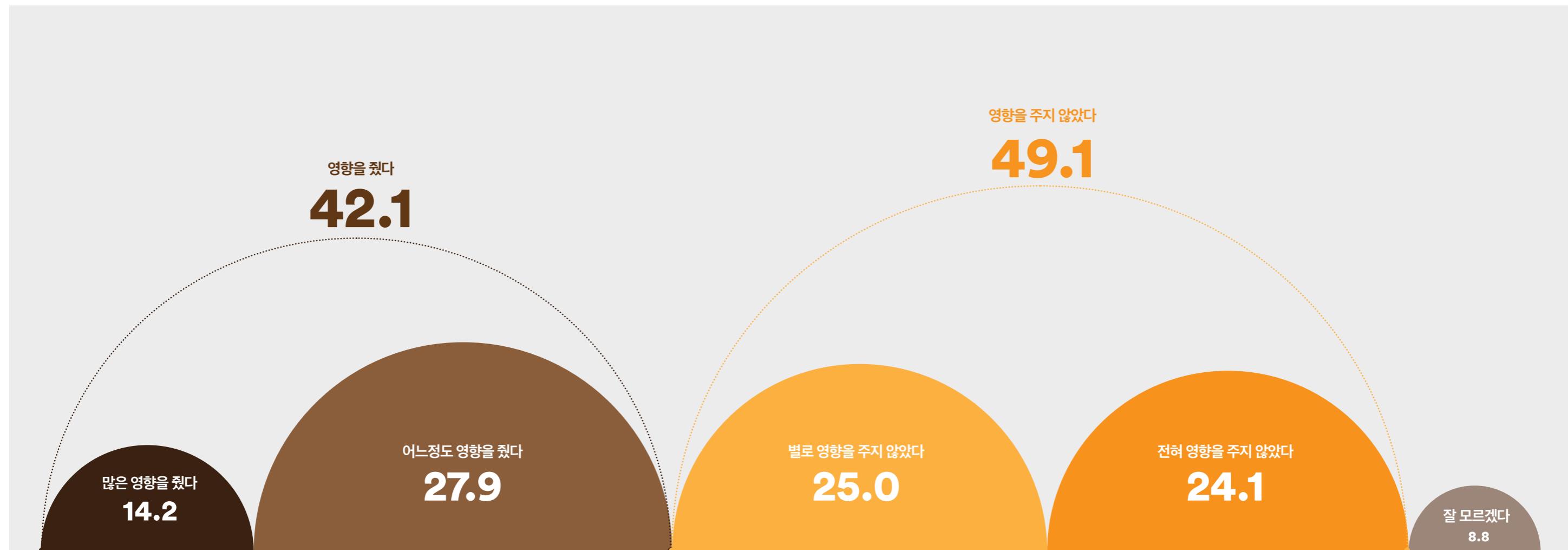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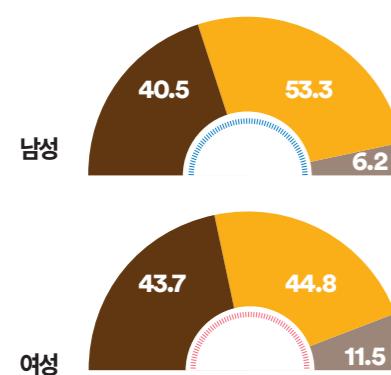
10.29 참사

원인: 촛불집회

Q. 10월 29일 진행되었던 촛불집회가 이번 10.29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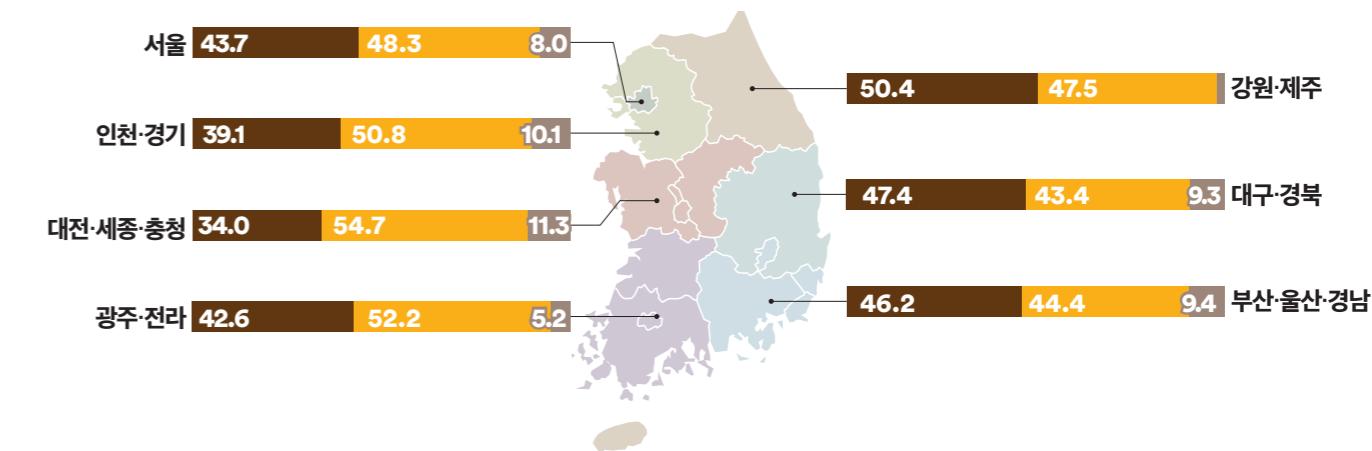
성별



연령

18-29세	40.2	46.1	13.8
30대	40.5	48.8	10.7
40대	42.1	49.4	8.5
50대	40.5	54.0	5.5
60세이상	45.1	47.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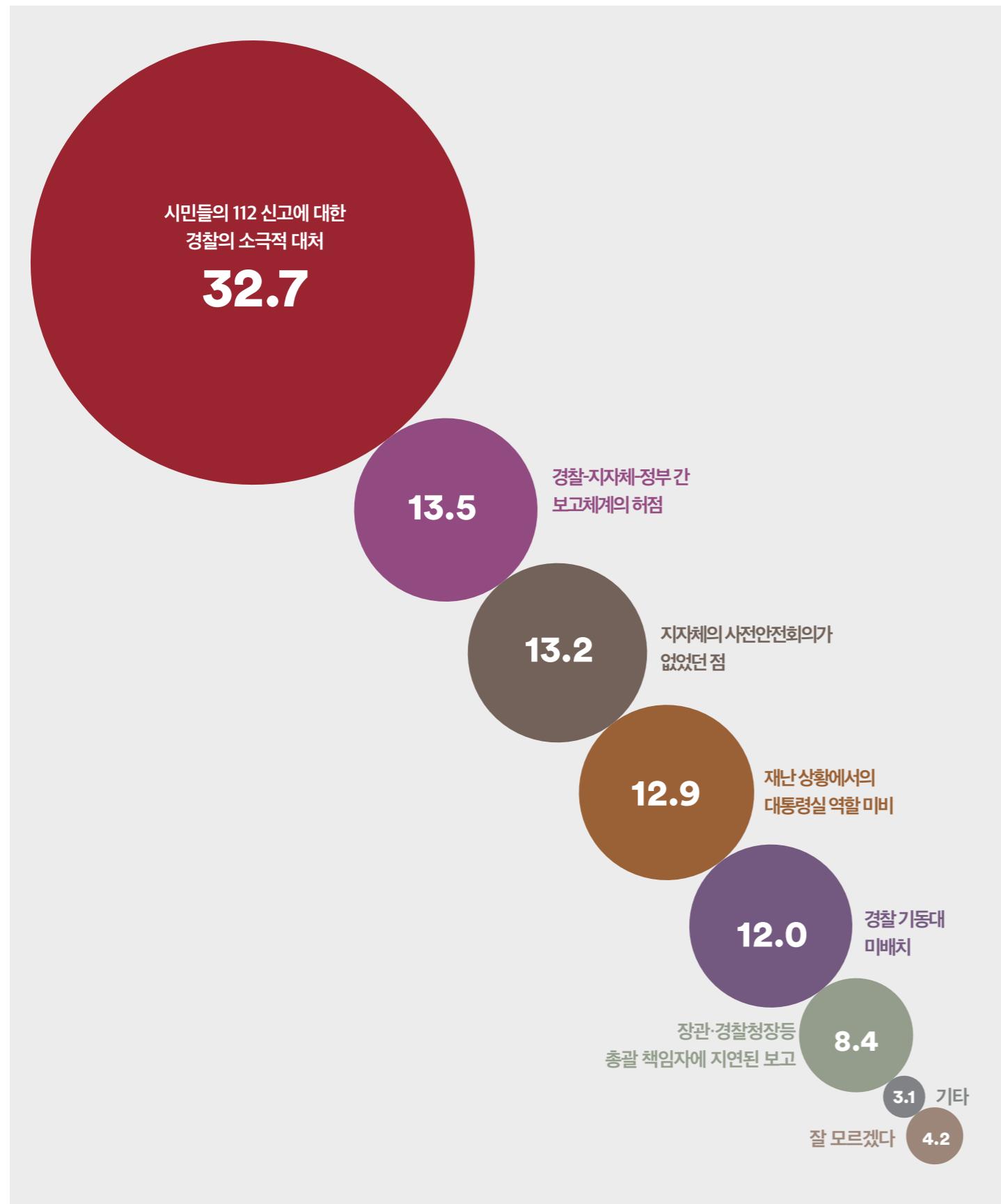
권역별



10.29 참사

대응: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사전/당일 조치

Q. 10.29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및 당일 조치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연령	18-29세	26.5	17.2	13.0	13.5	10.9	9.3	6.3
----	--------	------	------	------	------	------	-----	-----

30대	26.3	13.0	13.4	10.8	15.3	10.0	5.6	5.6
-----	------	------	------	------	------	------	-----	-----

40대	34.2	8.0	13.4	12.5	15.4	10.6	—	—
-----	------	-----	------	------	------	------	---	---

50대	36.7	13.4	13.9	16.2	11.0	6.2	—	—
-----	------	------	------	------	------	-----	---	---

60세이상	35.9	15.3	12.7	11.7	9.5	7.3	—	—
-------	------	------	------	------	-----	-----	---	---

정치관심도	매우관심있다	33.3	13.3	9.6	17.8	12.6	6.4	—
-------	--------	------	------	-----	------	------	-----	---

약간관심있다	30.5	15.0	14.4	12.5	13.0	9.0	—	—
--------	------	------	------	------	------	-----	---	---

별로관심없다	37.4	12.1	11.9	12.3	11.0	8.6	—	—
--------	------	------	------	------	------	-----	---	---

전혀관심없다	31.5	11.3	25.9	6.5	7.1	9.8	7.9	—
--------	------	------	------	-----	-----	-----	-----	---

잘모름	30.2	—	—	51.2	—	—	—	—
-----	------	---	---	------	---	---	---	---

성별	남성	34.9	14.5	11.7	11.7	11.4	8.5	—
----	----	------	------	------	------	------	-----	---

여성	30.6	12.6	14.7	14.0	12.5	8.3	—	—
----	------	------	------	------	------	-----	---	---

■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처
■ 경찰-지자체-정부간 보고체계의 하점
■ 지자체 시민안전회의 부재
■ 재난상황시 대통령실 역할 미비
■ 경찰 기동대 미배치
■ 장관·경찰청장등 총괄 책임자에 지연된 보고
■ 기타
■ 잘모름

10.29 참사

대응: 국가의 재난 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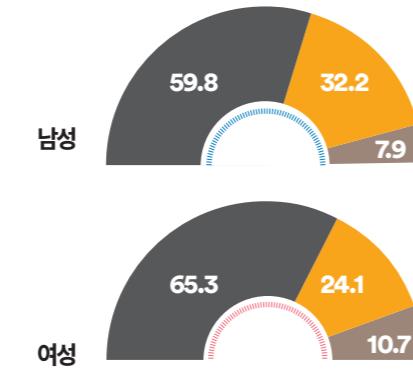
Q. 이전 정부와 비교할때 현 정부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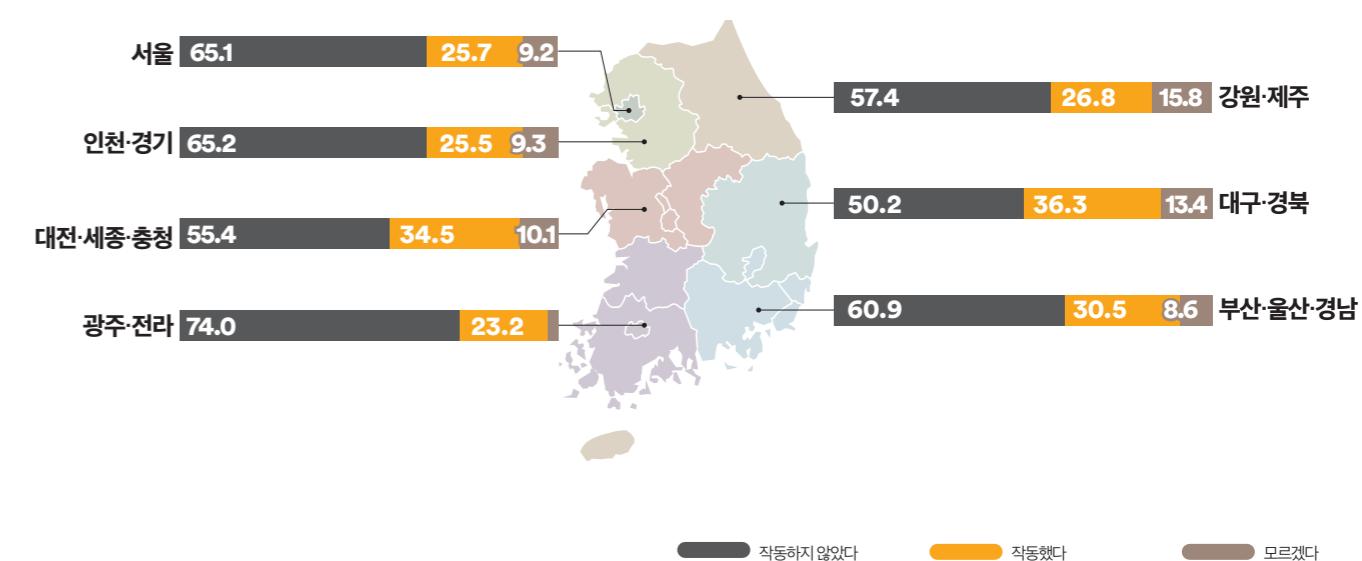
연령

18-29세	58.0	27.7	14.3
18-29남성	44.9	41.6	13.6
18-29여성	72.3	12.6	15.2
30대	59.8	27.4	12.8
30대남성	50.0	37.8	12.2
30대여성	70.4	16.1	13.5
40대	69.1	22.0	8.8
50대	74.7	19.9	5.3
60세이상	54.7	37.7	7.6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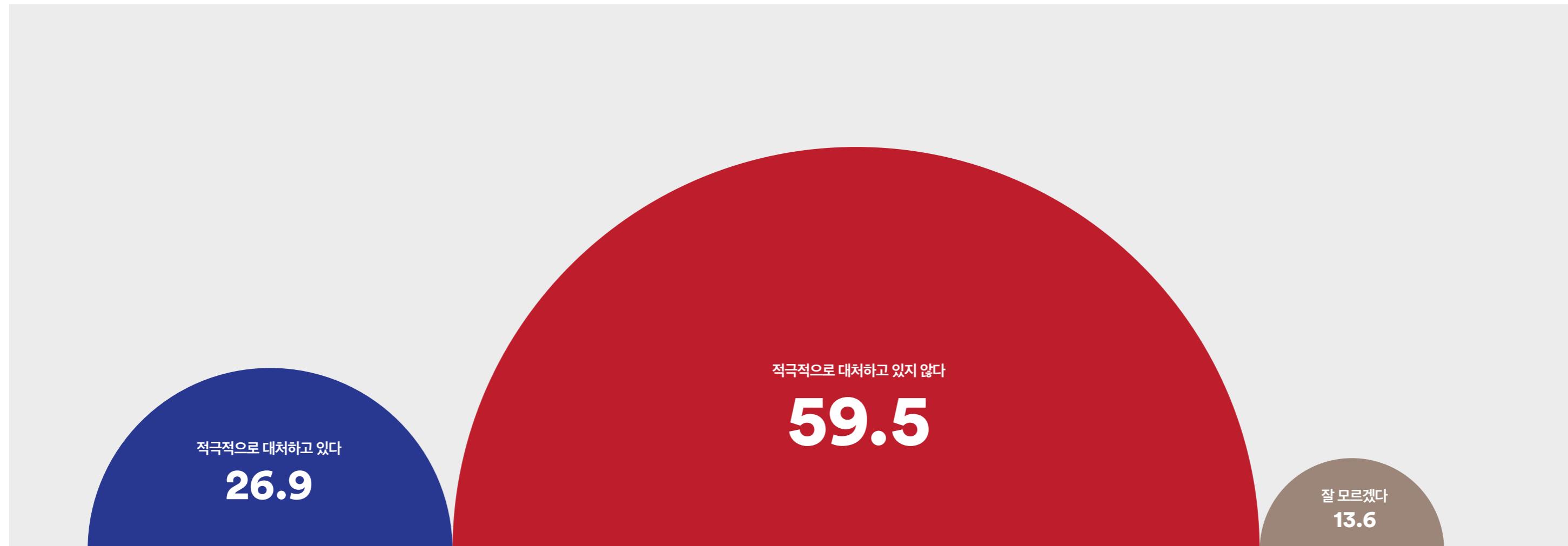
권역별



10.29 참사

대응: 정부의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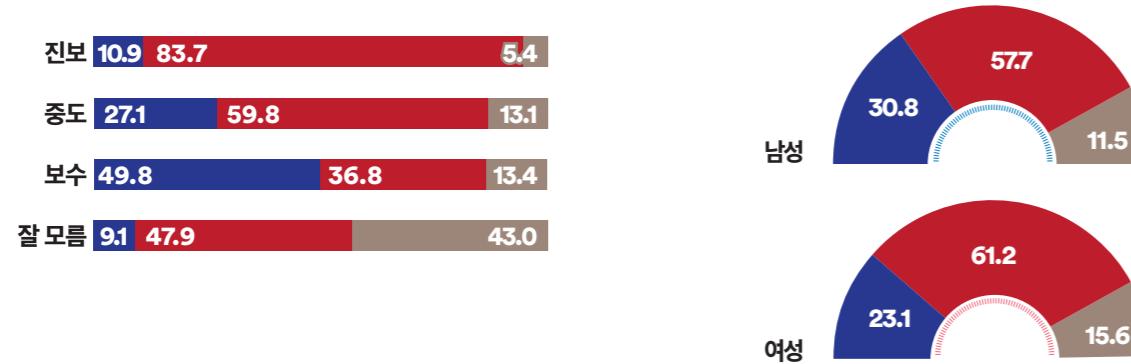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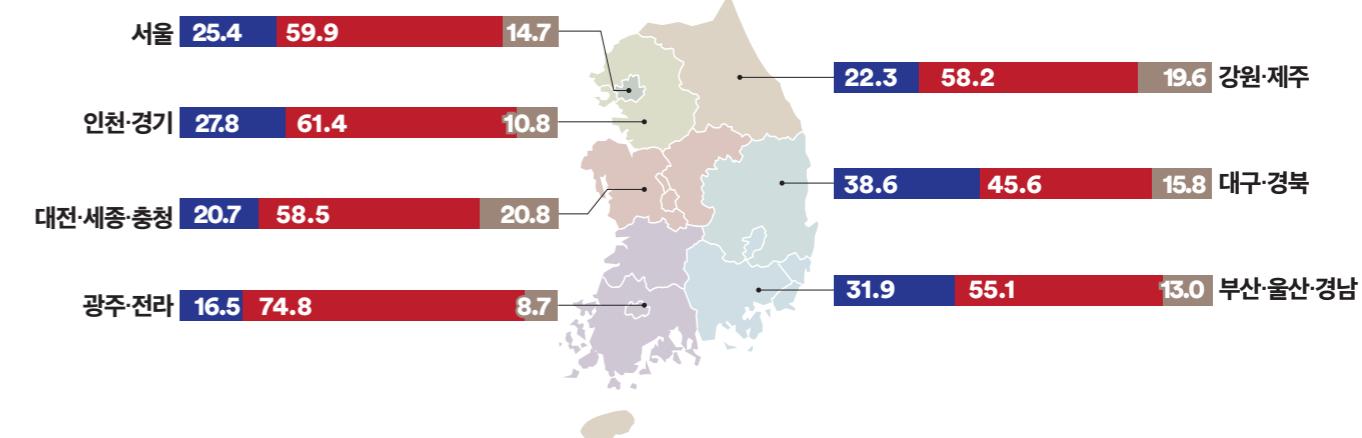
이념성향

진보	10.9	83.7	5.4
중도	27.1	59.8	13.1
보수	49.8	36.8	13.4
잘 모름	9.1	47.9	43.0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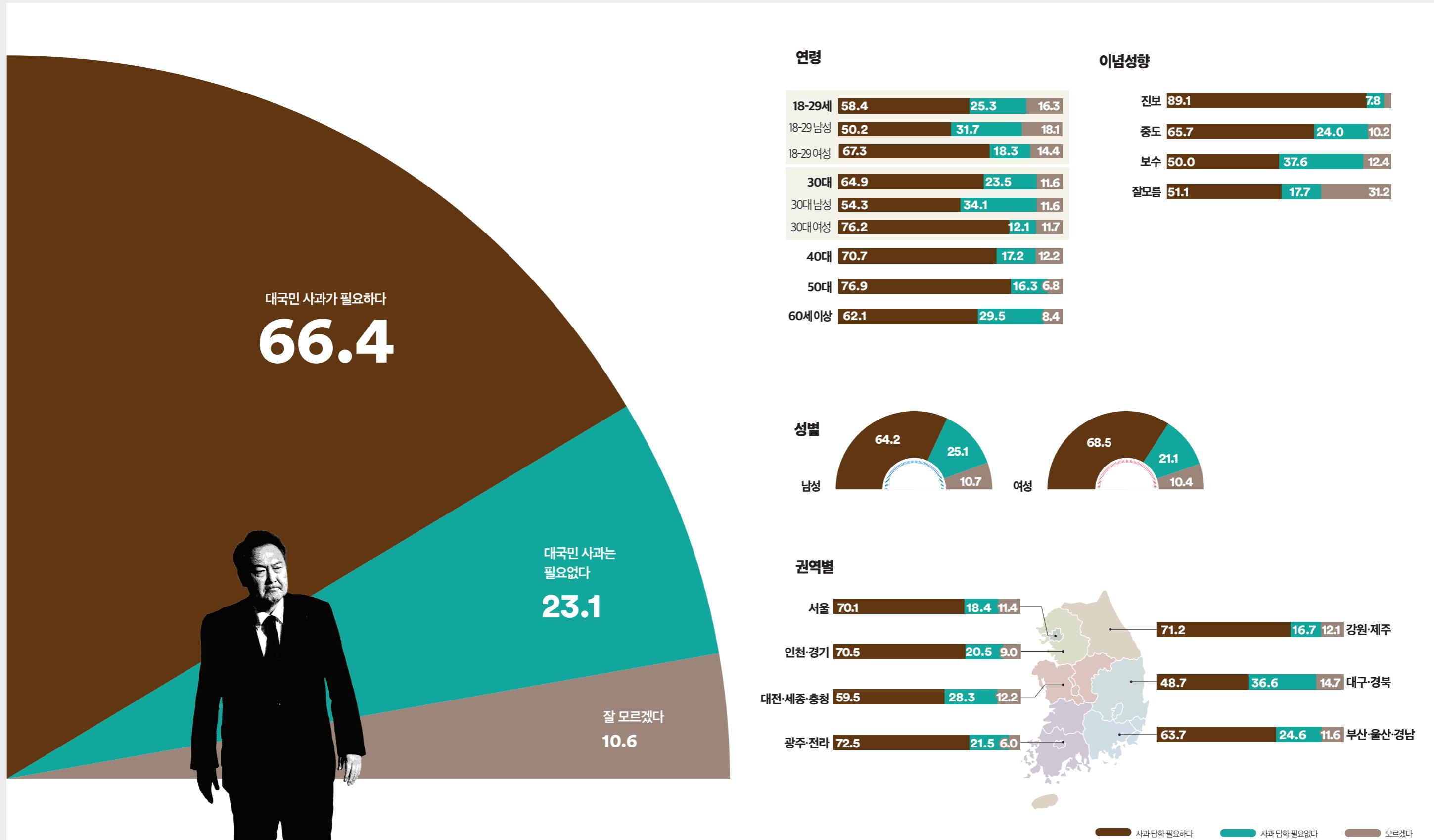
권역별



10.29 참사

대응: 대통령 담화형식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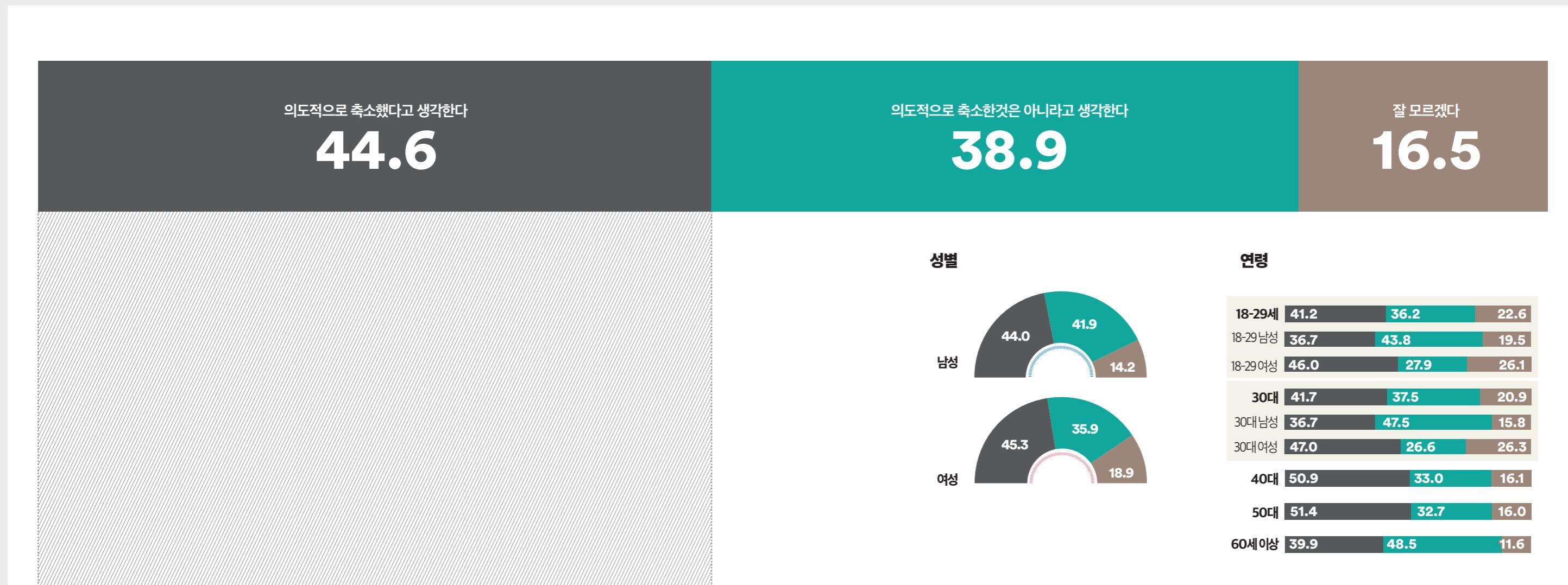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10.29 참사와 관련하여 종교 행사에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29 참사

대응: 추모 열기 의도적 축소 의혹

Q. 윤 정부가 10.29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추모 열기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일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여러 대응 중 무엇이 가장 비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29 참사

대응: 더불어민주당의 참사대응

Q.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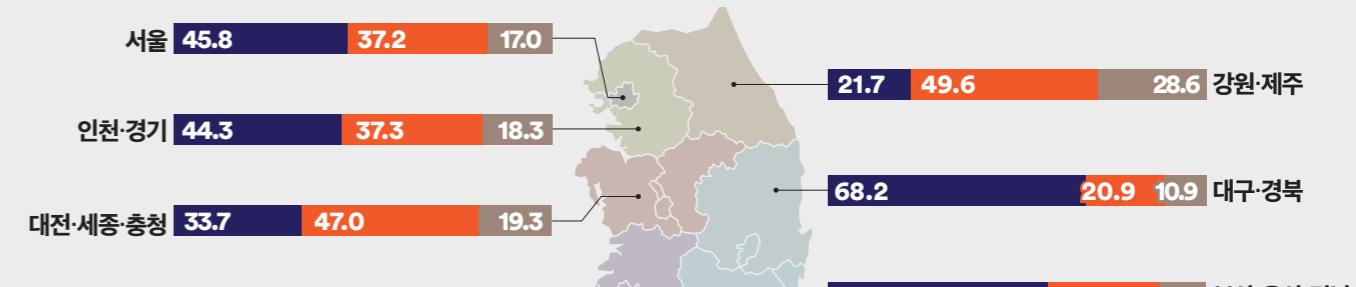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18-29세	41.6	27.8	30.6
30대	45.3	33.7	21.0
40대	38.2	44.0	17.8
50대	39.8	49.1	11.1
60세이상	54.8	36.2	9.0

이념성향

진보	20.4	68.2	11.3
중도	46.7	36.7	16.7
보수	72.3	17.8	10.0
잘모름	28.4	24.3	47.4

권역별



정쟁화 하고있다

정쟁화 하는건 아니다

모르겠다

10.29 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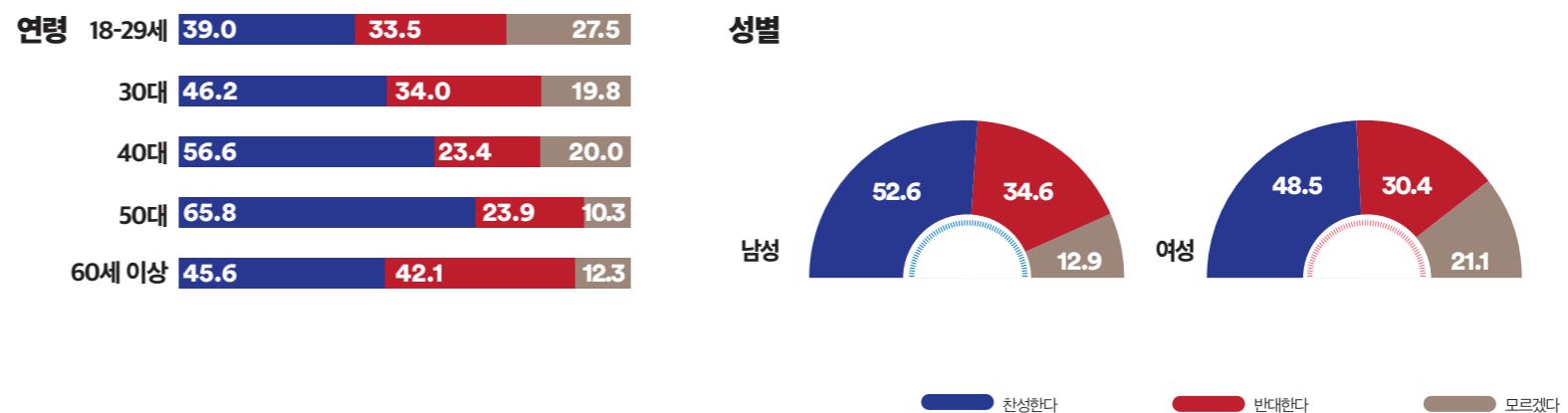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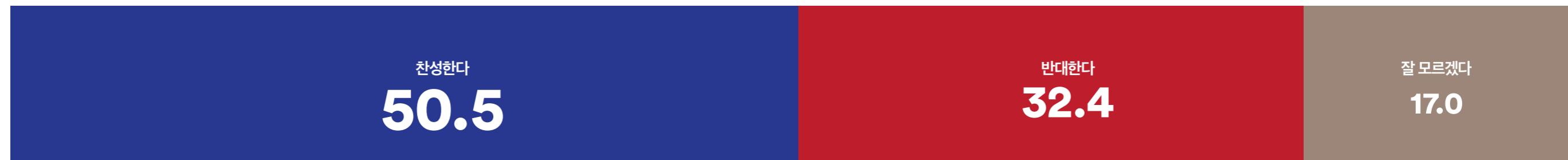
대응: 국정조사와 특검

Q.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	18-29세	45.9	26.8	27.3	이념성향	진보	81.3	10.7	8.0
	30대	58.8	22.9	18.3		중도	57.9	27.5	14.6
40대	62.7	18.8	18.5	보수	보수	30.8	51.9	17.3	
	50대	67.9	22.5	9.7	잘 모름	34.9	15.4	49.7	
60세 이상	49.0	39.7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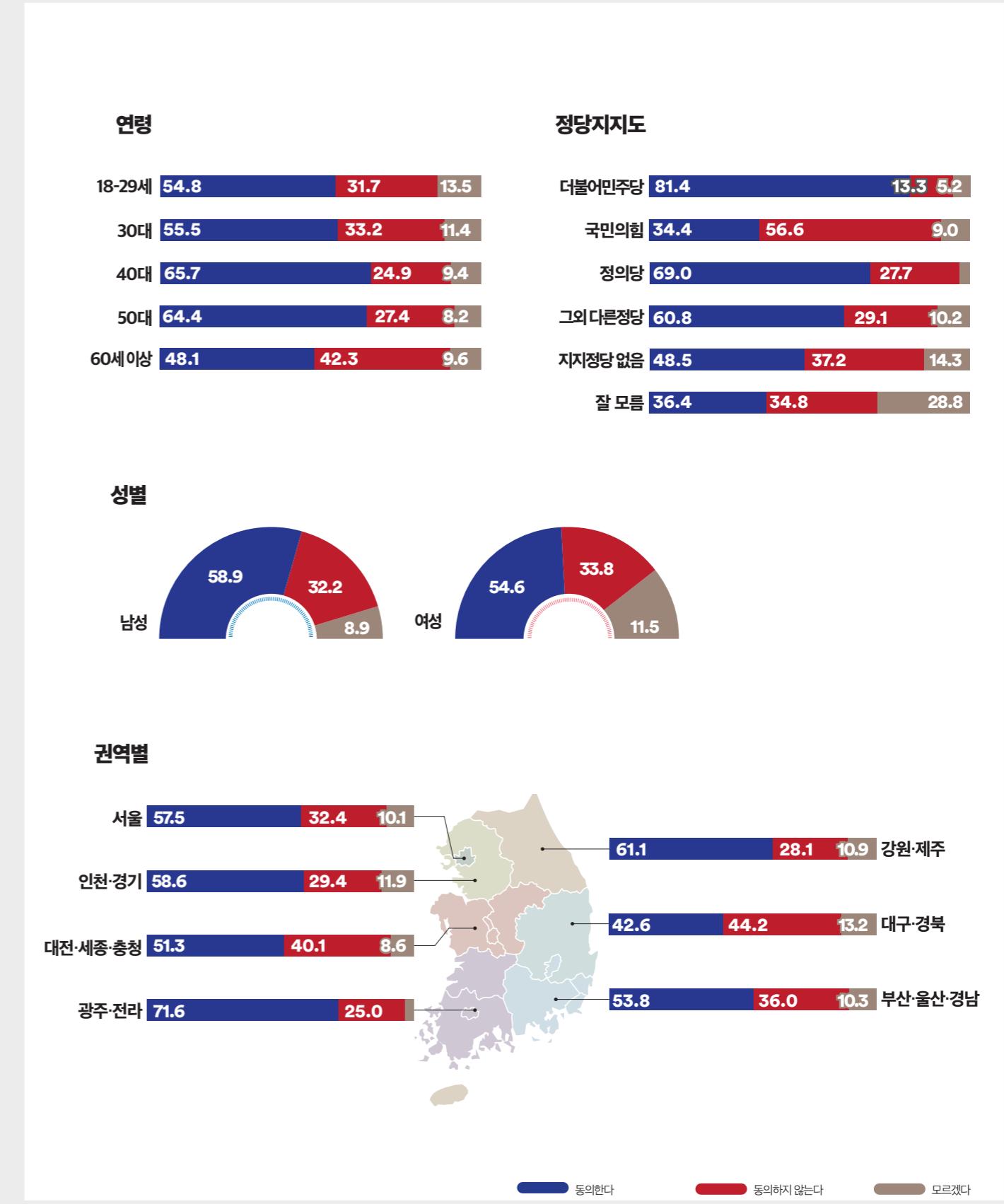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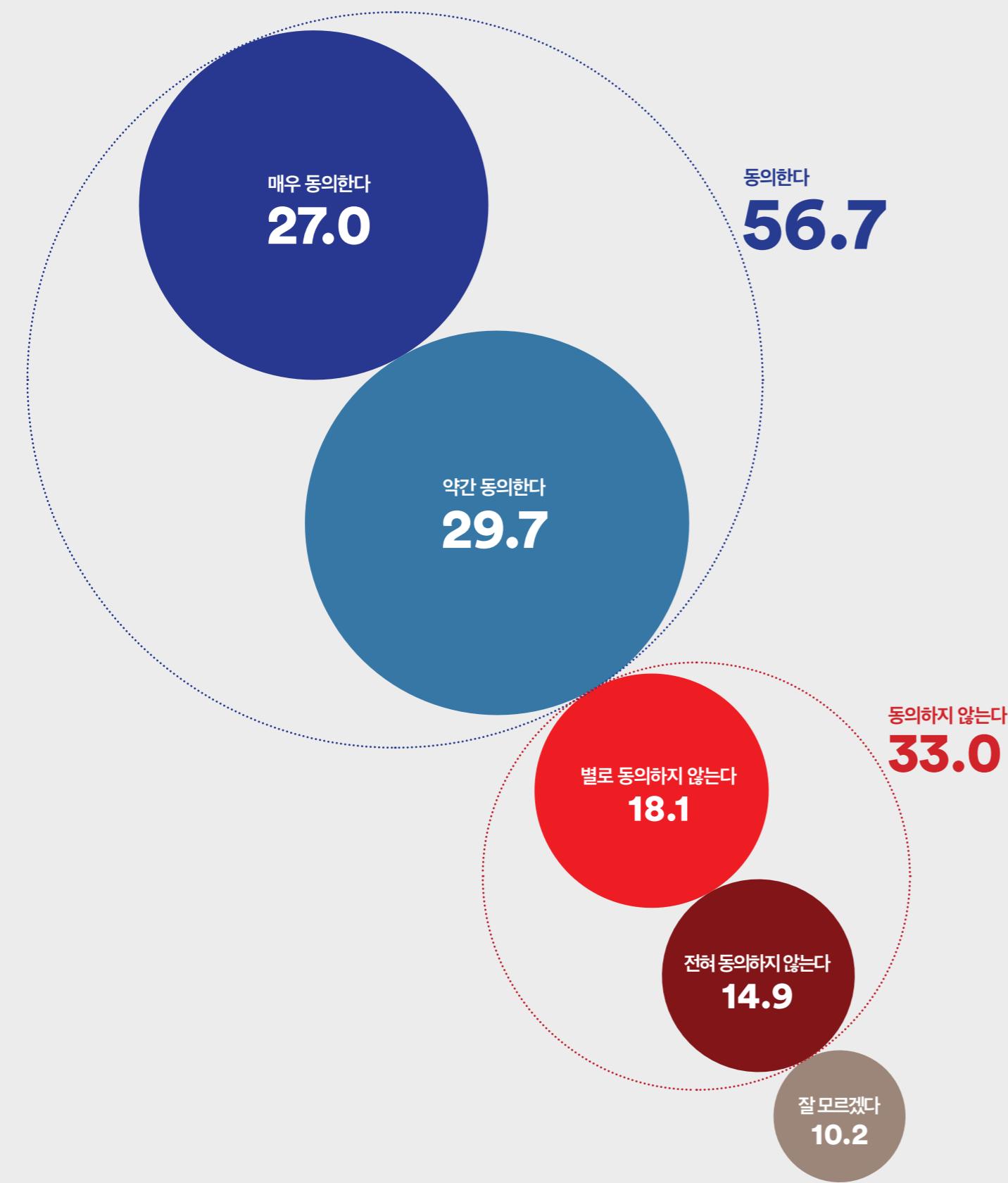
Q. 10.29 참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9 참사

대응: 희생자 명단 공개

Q. 영정사진과 위패 없는 분향소에서의 조문은 제대로 된 조문이 아니므로,
유가족의 동의하에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제대로 추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11_03

제15차 정례여론조사 ARS+WEB

보고서

www.flowerresearch.com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여론조사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